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제임스 김 목사

목차

서론	3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4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10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	15
방자히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17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18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	20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	24
그리스도인의 비극	30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십시오.	32
수치를 아는 그리스도인	34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글	36
예수님의 참된 제자	39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42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	46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49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56
성의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59
매력있는 그리스도인 직장인	64
위로하는 성도님들, 근심케 하는 목사님	69
외식하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반응해야죠?	72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75
환난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리스도인	79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헌신해야 할 3가지 일들	81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83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간관계	90
그리스도인의 바른 사업관	93
그리스도인의 바른 상속관	96
그리스도인의 바른 미래관	99
그리스도인의 바른 헌신관	101
그리스도인의 도덕 생활	104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108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	112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115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	119
끝까지 책임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123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125
그리스도의 일꾼들	128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133
결론	135

서론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요?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가요?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그리스인인 것 같은데 알아 갈수록 신앙이 너무 유치하여 불신자에 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마음의 믿음이 쉽게 흔들리는 그리스도인들,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본 교리도 잘 모르는 초심자들,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의 하나 됨을 깨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 방자히 행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들, 성령님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신을 따라 죄를 범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 주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고 입술로만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외식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요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을 잃었습니다. 세상의 소금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짠 맛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감당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꿀맛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수치심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들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최근 《연애, 결혼, 가정》이라는 시리즈의 책을 준비하던 중, 《교회, 목사, 그리스도》 시리즈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껏 써온 글들을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세 권의 시리즈로 모아 원고를 편집했습니다. 그 중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을 가장 먼저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 감사하고 기쁩니다. 이 책을 읽으시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는데 저의 부족한 글이 조금이나마 유익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새찬송가 463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 1절의 가사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제목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안에서,
제임스 김 목사 나눔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 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 서니라.” (로마서 2장 17-29절)

21세기의 선지자로 불렸던 A. W. 토저 목사님이 쓴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라는 책을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자기 진단법」 장이 나옵니다. 그 장에서 토저 목사님은 진짜 크리스천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자기 발견을 위한 7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주지 못할지라도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 자신에게 이 7가지 질문들을 던져 보길 바랍니다.

1.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2.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3. 나는 돈을 어떻게 쓰는가?
4. 나는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가?
5. 나는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6. 나는 누구를 존경하고, 어떤 것에 열광하는가?
7. 나는 무엇을 보고 웃는가?

이 질문을 던진 후, 토저 목사님은 「누가 가짜인가?」에 대해 8가지로 이야기합니다.

1. 가짜는 인스턴트이다: 인스턴트 기독교는 한 번의 신앙의 행위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가르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더 이상의 영적 전진을 갈망하는 욕구를 억압한다.
2. 가짜는 인격의 변화를 소홀히 한다: 세월이 흐르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아 아니라 변화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다.

3. 가짜는 하나님의 징계를 십자가 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플 때 우리는 우리가 잠시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껴야 한다. 반면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음을 말해준다.
4. 가짜는 행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려 한다: 행함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겠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을 상쇄하려면 얼마나 많은 선행을 쌓아야 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5. 가짜는 신조를 무시한다: 우리가 교리적 지식 없이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할 수 있으며,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진리는 명문화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명문화한 것이 곧 신조이다.
6. 가짜는 신학을 경시한다: 이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은 신학이다. 우리는 어렵게 배우고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굳게 결심하고 신학을 연구해야 한다.
7. 가짜는 감정을 등한시 여긴다: 우리는 감정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주신 우리의 정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8. 가짜는 영적 균형감이 없다: 진리는 새와 같기 때문에 날개 하나로는 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한쪽 날개를 아래로 쏘서 박은 채 다른 한쪽 날개를 미친 듯이 퍼덕이며 날아보려고 애쓴다(Tozer).

성경 로마서 2장 28-2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표면적 유대인(a Jew who is one outwardly)’과 ‘이면적 유대인(a Jew who is one inwardly)’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영적 우월감 속에서 이방인 형제들을 용서하지 않고 정죄하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표면적 유대인이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임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며, 표면적 그리스도인, 즉 겉으로 보기에만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겉으로 보이게만 그리스도인인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합니다.

성경 로마서 2장 17절을 보십시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

님을 자랑하며.” 바울은 표면적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 ‘유대인’이라고 칭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참된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자칭하였을까요? 그들에게는 특권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오직 자신들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권리(자격)가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자칭하였습니다. 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특별한 권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선택 받은 백성에게 소속돼 있는 것(belonging to the chosen people)입니다. 둘째, 율법을 의지하는 것(reliance on the law)입니다. 셋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a special relationship with God)(Moo). 표면적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영적 우월감에 젖어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한 것입니다(17절). 이것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리를 교회 안에서 행사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지만 깊은 마음속에서는 자신들의 영적 우월감, 교만함 가운데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들을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자기 자신이 영광 받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사람의 칭찬을 갈급해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며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회 안에서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1:18-32)’와 ‘하나님의 심판(2:1-16)’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2장 19-20절을 보십시오: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표면적 유대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소경 된 자, 어둠 속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와 어린 아이를 지도하며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바로 소경 된 자, 어둠 속에 있는 자, 어리석은 자이며 어린 아이인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무지의 원인은 영적 우월감, 곧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은 이렇게 우리를 맹인으로 만듭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뒤돌아보며 자아성찰하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교만은 다른 성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끄집어내어 자기 자신과 비교하고, 스스로가 그 정도보다 더 훌륭한 성도임을 자랑하게 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성경을 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자신이 성경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무지함 속에서 겸손하며,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하고 성경에 대해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 우월감 속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느라 교회의 평안을 깨트리고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셋째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남을 가르치기를 좋아하면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 로마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제가 도둑질하느냐.” 유대 신자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자들로서, 그 율법을 의지하였고(17절) 또한 율법의 교훈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였습니다(18절). 그들은 착각과 교만함 가운데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도적질 하지 말라(21절)’,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미워하라(22절)’ 등 이를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스스로는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고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면책하였습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도다”(23-24절). 겉으로 보기에 유대 신자들은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도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를 가르치는 것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성경적 교훈을 가르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부모 된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자녀들의 마음에 감화를 줄 수 없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교훈은 남을 긍휼히 여기는 동기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능욕에서 난 것이다. 그러한 교훈은 피교육자에게 감화를 주지 못하고, 도리어 반감을 일으킨다”(박윤선).

마지막 넷째로,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외면적 생활을 위주로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율법과 할례, 이 두 가지에 대해 말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있고 듣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권면하였습니다(13절). 그리고 그는 그들에게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가 아무 유익이 없는 ‘무할례’가 된다고 말했습니다(25절).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특권의식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이 율법(the Law)과 할례(circumcision)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과 할례는 하나님께 선택 받은 백성들의 증표이었기에 그들에게 이 두 가지는 엄청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행하지 않음에도 율법과 할례를 자랑삼고, 영적 우월감 속에서 교만하게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외면적 신앙생활에 치중하느라 참된 믿음이 없이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람 앞에서 보이고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다음 세 가지를 따릅니다.

첫째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성경 로마서 2장 29절을 보십시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면적 유대인은 ‘성령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님께서 마음에 할례를 행하심으로 ‘이면적 유대인’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선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결코 그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바울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던 이유는 유대인들이 구원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라고 믿기보다 조건적, 즉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십자가의 공로보다 인간의 공로에 더 크게 의지하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편지로나마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들, 즉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에베소서 2장 8-9절 말씀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이 결코 자신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 아무 것도 자랑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랑 할 수도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처럼 율법과 할례에 대해 자부심을 갖거나 교만함 가운데서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떠드는 자들이 아니라 듣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입술로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만일 우리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창피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나갈 때 빛 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예수님을 닮은 것 같지만 우리의 행동이나 삶은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살아 있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셋째로, 이면적 그리스도인은 외면적인 생활에 치중하기보다 내면적인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서 칭찬 받는 것이지 결코 사람에게서 칭찬 받는 것이 아닙니다(29절하). 그들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고자 힘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내면을 가꾸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은 아름답습니다.

찬송가 518장 ‘신자 되기 원합니다.’란 찬송가 가사가 생각납니다. 이 찬송가 가사에는 ‘진심으로’라는 말이 20번 나옵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찬송은 흑인 영가라고 합니다. 흑인영가는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끌려와 얼굴 색깔이 검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노예로서 갖은 수모와 멸시를 당했던 흑인 노예들의 신앙적 바람과 정한이 오랜 세월을 거쳐 노래로 형상화된 것입니다(인터넷). 노예로서 혹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흑인들이 유대인 신자들처럼 영적 우월감 속에서 자기들이 진정한 신자라고 말하면서 남을 가르치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마음 중심에서 우러러 나오는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신자 되길 원한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참된 신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줄 알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참된 신자가 되길 기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을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과연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 신약 성경에 세 차례 언급하고 있습니다(행11:26, 26:28; 벧전4:16). 문자적 의미로는 ‘그리스도 당에 속한 자들’ 혹은 ‘그리스도 추종자, 신봉자’라는 의미입니다(인터넷). 성경에서는 안디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안디옥의 비신자들이 모욕하며 비하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불린 이유는 그들의 언행이나 활동 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실로 거듭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보다 그저 종교적이거나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복음 전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고에 들어가는 것이 자동차로 변해서 나오지 않듯이 교회에 참석한다고 크리스천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것, 그리고 교회 일에 헌신하는 것 등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과연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지 혹은 ‘영에 속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인지 아니면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인지 우리 각자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원래 육신에 속한 자’란 말은 실상 불신자를 의미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 신앙이 유치하여 불신자의 정도에 가까운 자를 가리킵니다(박윤선). 바울이 불신자의 정도에 가까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성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잘 속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영적으로 미성숙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의 정도에 가까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아이처럼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잘못된 교훈, 잘못된 가르침에 귀가 솔깃하여 마음의 믿음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 이유는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연약하여 쉽게 유혹 당하고 쉽게 흔들립니다. 결국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아이들처럼 잘 속아 넘어가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빠져 하나님께 죄를 범합니다. 과연 그들은 어떠한 죄를 하나님께 범합니까? 그들은 세상 불신자들처럼 세상 것들을 자기의 마음을 허망한 것으로 행합니다(엡4:17). 예를 들어 그들은 불신자들처럼 감각 없는 자들이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19절).

둘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젓”을 먹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젓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느 어머니도 갓난아기에게 밥이나 고기를 먹이지는 않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모유나 우유를 먹입니다. 밥이나 고기를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는 단단한 것을 잘 씹을 수 있는 이도 아직 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고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영적으로 갓난아기인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밥을 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젓을 먹어야 합니다. ‘젓’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모든 기본 교리를 가리킵니다(박윤선).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의 초석(the elementary teachings about Chris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히6:1). 이는 초등학교 수준의 신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지 20~30년이 되었는데도 아직 초등학교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초등학교 6년을 마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남아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고 믿음이 정상적으로 성장하여 지금쯤은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어른인데 영적으로는 갓난아기 신앙 밖에 없으니 이 어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겠습니까?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의 초보자들로서(히5:12) 기본 교리는 알고 있지만 더 깊은(더 차원 높은) 교리는 듣는 것이 둔하여(11절)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결과 깊은 영적 분별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사단과 이 죄악된 세상이 유혹할 때 선과 악을 분명하게 분별하지 못하여 그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셋째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시기와 분쟁으로 교회의 연합을 깨는 자들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3-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자랑하면서 시기와 분쟁 가운데 당파를 지으며 교회의 하나 됨(연합)을 지켜 나아가지 않는 모습을 듣고 이것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행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불신자라는 뜻이 아니라 부패한 성질의 영향을 받고 있는 자란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서(3절)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natural man)의 성품을 따라 행하는 것을 가리킵니다(박윤선). 한 마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기보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기 전처럼 옛 사람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21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와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불신자와 너무나 비슷하게 살아가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살기보다 옛 죄악된 습관대로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서 세상과 짝지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교회 밖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육체의 일을 생각하고 육체의 일을 좇으면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신령한 공동체가 되기보다 점점 더 세상과 별 다를 바 없는 불신자들의 공동체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까? 성경 고린도전서 3장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신령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원래 ‘신령한 자들’이란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고린도전서 2장 6-16절을 보면 네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비밀 가운데 감추었던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고 믿는 자들입니다.
2.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곧,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과 더불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인 모든 영적 축복을 아는 자들입니다.
3.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있기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신령한 가르침을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습니다.
4. 성령을 받아서 거듭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자들’이란 고린도 전서 2장 6-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령한 자’들과 다른 의미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령한 자들'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신령한 자들이란 불신자들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영적으로 장성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엡 4:13) 믿음에 견고히 서 있는 자들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에 견고히 서 있어 세상의 모든 잘못된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견고히 서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로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분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둘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밥(단단한 식물)'을 먹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나 지금도 못하리라.” 장성한 어른이 갓난아기처럼 모유나 우유만 먹으면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장성한 어른이라면 밥도 먹고 고기도 먹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신령한 그리스도인들, 즉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밥'을 먹을 수 있는 영적 수준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밥'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밥'이라 번역을 했지만 그 원래 의미는 '단단한 식물'(solid food)입니다(히 5:12,14). 그러면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1.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들입니다(히5:13). 다시 말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 것처럼(8-9절)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므로 순종함을 배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자들입니다.
2. 단단한 식물을 먹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지각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히5:14).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여 선은 택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자들입니다(살전5:21-22).
3.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므로 하나 됨을 지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자들입니다(고전1:10). 그들은 결코 시기와 분쟁 속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뜻으로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깨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하나 됨을 잘 지켜 나아가고자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님을 좇아 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령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5:22-23).

말씀을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보다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불신자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육체의 일을 추구하면서 시기와 분쟁의 죄악된 열매를 맺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초보자인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을 택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특히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교회의 하나 됨 힘써 지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12, 20절)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어리석은 자입니다(13절).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53:1).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합니다(52:7). 즉,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입니다(49:6). 이러한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왜 어리석은 것인지 세 가지 이유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첫째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가 죽을 때 그 재물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49편 17절을 보십시오: “그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인생에서, 우리는 사람이 부요해지는 것이나 그 사람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두려워하거나(16절)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시편 73편). 죽을 때에는 그 사람의 부함과 영광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49:17). 비록 그가 살아생전에는 자기 스스로 ‘나는 참 복 받은 자이다’, ‘나는 참 성공한 자이다’라고 축하하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지라도(18절) 결국 죽을 때에는 그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기에(19절) 우리는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가 죽을 때 그 재물을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49편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이다.” 우리는 악인의 행동을 부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악인들의 풍부한 재물을 욕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잠13:22). 그러므로 우리는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27:24). 재물은 허무한 것입니다(23:5).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갈 것이기에 우리는 헛된 재물에 주목하지 말아야 합니다(5절). 우리는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셋째로,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어리석은 이유는 재물이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시편 49편 7-8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할지라도 인간을 사망에서 구속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구속은 너무나 귀합니다.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씌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것은 결코 많은 재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재물로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기에 우리는 재물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우매하고 무지합니다(시73:22). 그리고 우매 무지한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합니다(3절). 마음의 소원보다 많은 오만한 악인의 소득(7절)과 더욱 불어나는 그의 재물을 보고(12절)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종일 재난을 당하는 자신(14절)과 비교하면서 자기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다고 생각합니다(13절). 그 결과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깁니다(마6:24).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우상화합니다.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돈을 사랑합니다(딤후 6:10; 딤후3:2). 죽을 때에 재물을 가지고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재물을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합니다(시49:6). 혹시 저와 여러분이 짐승 같은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찬송가 141장 1절).

방자히 행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목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나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29장 18절).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음부의 행위’를 하였습니다(겔16:30).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입히신 영화로 온전케 된 화려함을 믿고 자신들의 명성을 인하여 음란을 많이 행하였습니다(14-15절).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섹스러운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행음을 하였습니다(16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들로 우상을 만들고 행음하였습니다(17절).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쳤습니다(20절).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17절). 그들은 자신들의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앗수르 사람과 행음하고도 오히려 부족히 여겨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족한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28-29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방자한 음부 행위’입니다(30절).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에스겔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자한 음부 행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방자하였습니다(출32:25).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라고 말하고,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1절). 그들은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8절). 모세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히 방자하였습니다(25절). 그 원인은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25절). 그러므로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25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분의 말을 그 입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신18:18).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고하게 하려 하셨습니다(18절). 그러나 문제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방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였습니다(20절). 거짓 선지자가 방자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22절). 지금도 우리 주위에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목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경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잠14:16).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악을 떠나지만,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거만하여 경솔하고 부주의합니다.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율법에 제한 받기를 거부합니다(29:18). 그러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자기 행실을 삼가므로 자기의 영혼을 지킵니다(19:16).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29:18). 당신은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은 방자히 행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복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
(누가복음 10장 29절).

여러분은 성경에 나오는 간음한 다윗 왕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경고로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위로로 받아들이십니까? 웬지 요즘 목회자의 성추행이 일어날 때마다 인터넷 기사를 보면 간음한 다윗 왕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 이야기의 초점은 회개보다 용서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성추행까지 범하고 나서도 다윗 왕의 이야기를 논하면서 철저한 죄에 대한 회개가 없이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간음죄에 대한 정직한 마음의 자백이 없이 그저 간음죄를 숨기려다가 들기면 그때서야 할 수 없이 우리 자신들의 간음죄를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되 우리는 그 들킨 죄에 대한 인정도 교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죄를 지적한 사람과 몇몇 사람들 앞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계속 우리가 범한 죄를 은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된 본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의 범죄를 철저히 들춰내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시므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행 13:22).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윗은 철저히 회개하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금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철저히 들춰내심을 받은 자는 복 받은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죄를 철저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참 복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를 들춰내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계속 숨기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종을 더 이상 쓰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들춰내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덮고자 하며, 철저한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실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데(시32:1) 사람이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함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버림받는 종은 마치 사울 왕처럼 죄를 지적 받고나서도 이런 저런 변명과 합리화 속에서 계속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삼상15:30). 교만의 끝은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0장 29절에 나오는 ‘이 사람’은 ‘어떤 율법사’입니다(25절). 그 율법사는 예수님께 나아와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25절). 그 때 예수님께서서는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26절). 그 때 그 율법사는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27절). 그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28절). 그 대답을 들은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오니이까”라고 질문하였습니다(29절).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질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30-35절).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그 율법사에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셨습니다(37절). 예수님께서서는 그 율법사에게 선

한 사마리아인처럼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흥미롭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서는 28절에서 “이를 행하라(Do this)”고 말씀하신 후 이렇게 37절에 와서도 “이와 같이 하라(Do likewise)”고 두 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서는 그 율법사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이나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율법사는 율법의 잘못된 해석의 틀 안에 자기 자신을 집어넣어 이방인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이웃 사랑을 행하라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율법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웃 사랑을 행하였는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성경은 그 율법사가 예수님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37절)는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이방인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했는지 침묵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은 그 율법사는 예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25절). 이보다 더 큰 둘째 이유는 그는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29절).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개가 다시 자기의 토한 것으로 돌아감 같이 자기의 미련함으로 돌아갑니다(잠26:11). 분명히 예수님께서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눅10:27) 교만한 사람은 그 명령을 불순종하고 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는 불순종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을 합리화시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이웃을 마음으로 정해놓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이웃으로 여기고 사랑합니다(마5:46-47). 그는 자기를 미워하던지 또는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은 이웃으로 여기지 않기에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으면서도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설상 그가 자신의 죄를 지적받는다 하여도 마음이 교만하여 작은 죄책감 속에서 죄를 덮고 또 덮고자 합니다.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들춰내시고 또 들춰내심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죄를 덮고 또 덮고자 애씁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미련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전10:3). 혹시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닌지요?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치 아니하였느냐 외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사도행전7장 51-54절).

고집이란 무엇입니까? 고집은 굽히지 않는 성질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에게 자기 생각을 능동적으로 제시하여 관찰하기 위해서도 쓰이고, 남의 말을 듣지 않고 제 생각대로만 하는 경우에도 쓰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출32:9).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인간의 고집과 어리석은 거만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목이 곧다는 말은 목이 뻣뻣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멧을 매는 소를 연상시킵니다. 소에게 멧을 지우려고 하면 고개를 숙여야 하는데 멧을 매기 싫어서 고개를 쳐들고, 목을 뻣뻣하게 하고 발버둥을 치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면 ‘목이 곧고(stiff-necked)’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네 가지로 목상을 해 보면서, 만일 우리가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1절을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슬러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구나.” 성경은 스테반을 재판하는 목이 곧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너희가 성령을 거슬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스테반의 연설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처럼 성령님을 거역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와 그 이후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권고할 때 목이 곧은 그들은 성령을 거역했고 그들의 후손인 종교 지도자들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배척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여기서 성령님을 ‘거스르다(resisting)’는 성령님의 메시지와 그것을 전하는 메신저들을 거절함·반대함·적대시함을 의미합니다(MacArthur).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성령님을 거스렀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은 영적 순종함을 외적 예배로 바꾸었습니다(Furneaux). 이 말은 성령님의 메시지에 순종하기보다 겉으로 드러지는 예배로 대신하였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의 메시지는 거절하면서 자기 종교적 만족을 누리하고자 꺾뎠기뿐인 예배에 헌신하였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님을 거스렀습니까? 왜 성령님의 메시지를 거역하고 거절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육적으로는 할례를 받았으나 그 심령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실상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기업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로서 율법이나 성전의 외형에 치중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송 받았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칭찬 받지 못하는 육체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성령님의 음

성을 듣고 순종하는 영적 순종의 삶보다 육체적 종교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거슬러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칭찬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롬 2:28-29).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님을 대적하지 않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약4:7).

둘째로,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의인을 핍박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 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스테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이 범한 죄와 더불어 그들이 범하고 있는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그가 드러낸 조상들의 범 죄는 하나님께서 보내사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케 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죽인 죄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의 오심이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습니다. 스테반은 자기의 연설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무죄성과 의로움을 강조하면서, 그 예수님을 죽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적나라하게 들춰내었습니다. 스테반이 유대 민족의 근본 죄악의 정곡을 찌른 것입니다. 바로 메시아를 죽인 죄였습니다.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성령님의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거절한 채 자기 종교적 만족을 위하여 경건의 모양을 추구 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교회를 세속화하면서 주님의 의를 나타내기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세우신 주님의 종들을 핍박하며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또한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미워하므로 살인합니다(요일3:15). 우리는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은 우리는 서로를 마음으로 미워하므로 살인죄를 범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로,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3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테반은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 죄악의 정곡을 찌르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살인한 ‘너희’들이 천사가 전해 준 율법을 받고서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자들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천사를 경유하여 주셨는데(갈3:19; 히2:2) 그 율법을 받고서도, 그 율법이 예언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귀하게 여겨서 그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면서도 그 율법의 핵심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고 있습니다(사30:9).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지키고 있습니까? 찬송가 379장을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집을 짓는 자들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던지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습니까(3절).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 듣고서 준행함을 말합니다.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집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습니다(1절).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것 같아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 때에 크게 무너집니다(2절). 과연 우리는 집을 잘 짓고 있습니까?

이번 주 어느 목사님을 만나 대화하면서 참으로 사탄이 우리 가정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갈등, 그 갈등을 보면서 자라나는 자녀들이 입은 상처와 아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신앙의 성숙도를 어떻게 잴 수가 있을까요? 누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의 밭과 같은 마음(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속히 하며 또한 그 말씀을 듣고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이러한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의 흡수력이 부족하여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받아들인 말씀들을 즉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훈련 중에 중요한 것은 '묵상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신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루는 습관을 경계해야 합니다. 미루다보면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으로 옮기자는 결심 속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분노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찢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것은 스테반의 연설을 듣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이 찢려 심히 분개하였음을 말해줍니다. 자기들의 조상들까지 들먹이면서까지 자기들에 죄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스테반의 연설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에 찢려 심히 분개하는 가운데 이까지 같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은 스테반을 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찢림을 받았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은 두 가지 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음의 찢림의 긍정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찢려 결국 회개하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행2:37). 둘째로, 마음에 찢림의 부정적인 반응은 마음에 찢려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분개하여 이를 가는 것입니다(5:33, 7:54). 여기서 첫 번째 긍정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반면에 두 번째 부정적인 반응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저주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찢림이 있습니까? 그 찢림을 느끼고 회개합니까? 아니면 분노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에 찔림이 있다면 마음을 강퍽하게 하여 분노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은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성령에 거스르고 있습니까? 의인을 핍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분노합니까? 만일 우리의 양심이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목이 곧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로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훼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아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로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로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훼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마태복음 15장 1-20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만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특히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 중 질병으로 고통당하면서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어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이 기대한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셔서 여러분이 사랑하는 식구가 질병 중에 죽으면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욥기 1장 20절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욥은(1절) 자신의 자녀들 10명이 다 죽고 모든 재물을 다 잃은 후에도(13-19절) 일어나 겹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습니다(20절). 욥뿐만 아니라 다윗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낳은 아이가 심히 앓을 때(삼하12:15) 금식하며 간구하였지만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19절).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였습니다(20절).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4장 23-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경 마태복음 15장 9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 과연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1절을 보십시오: “그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 예수님에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마23:33)라고 크게 꾸지람을 받은 자들입니다. 당시 죄인들이라고 여겨졌던 세리나 창녀들도 꾸짖지 않으셨던 예수님께서서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그리도 크게 꾸짖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 세 가지를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할례’와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딤후3:5)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엡2:8)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행위로 구원 받는다고 믿으며 모세의 율법과 할례와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데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롬10:2). 예수님께서서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꾸짖으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외식 때문이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7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서 이사야 29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으로서 예수님께서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 마태복음 15장 8-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있었습니다. 한 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자그마치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 한 가지 말씀의 핵심은 외식하는 자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3절).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3절).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

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3절).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외식하는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말은 바르게 하는데 삶은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주일에 주님의 전에 올라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15:8) 또 다른 한 가지 말씀의 핵심은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23:5-7).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에게 ‘랍비(선생님)’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구제할 때에도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하였습니다(6:2). 또한 기도할 때에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5절). 지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며 봉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높임 받기를 좋아하는 이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사람들에게 영광 받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도적질하는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 안에 외식이 있다면 우리는 그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벧전2:1). 만일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하면서 안으로는 외식이 가득 하다면(마23:28) 우리는 그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앞에 나아와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시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3절을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 나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중요시하였던 장로들의 전통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중요시하였던 장로들의 전통은 바로 떡 먹을 때에 손을 씻는 것이었습니다(2절). 이것을 마가는 마가복음 7장 3-4절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닢그릇을 씻음이라.” 마가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중요시 했던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통은 성경의 교훈이 아닙니다. 이 전통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보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기재되지 않은 많은 규칙들을 유전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박운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한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본 것입니다(마15:2, 막7:2).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2절). 그들에게 있어서 씻지 아니한 손(unwashed hands)은 부정한 손(unclean hands)이었습니다(막7:2). 그래서 마가복음 7장 5절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

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 때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마15:3). 성경 마가복음 7장 8-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이 저버리고 범한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12절과 21장 17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바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였습니다(마15:6). 그들은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르반Corban—a gift devoted to God)고 하기만 하면 자기 부모님에게 아무 것도 하여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막7:11-12). 그 때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누구든지 자식으로서 그 부모를 부양할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재산을 성전에 바친다는 서약만 하고서 그 일생 동안 그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야 말로 노골적으로 부모 부양의 책임을 회피하는 술책입니다. 박윤선 박사는 “그것은 참으로 가증한 죄이며 하나님 봉사의 성스러운 이름을 이용하여 불효의 죄를 기른 큰 악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박윤선).

혹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죄를 하나님께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성경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주님을 섬긴다는 핑계로 우리 집에서 효를 행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보답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을 헌신적으로 섬긴다는 핑계로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고 또한 우리 집에서 효를 행하지 않고 부모님에게 보답을 하고 있지 않으면서 이렇게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보다 사람의 전통이나 사람이 만든 계명들(규칙들)을 좇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중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사람들의 전통이나 규칙들에 얽매인 삶을 살다가 이렇게 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입술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면서 보이는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마음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5장 11절과 18절을 보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 입에서 나오는 것

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아니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합니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외부적인 것은 그 무엇이든지(예컨대 손 씻지 않고 떡을 먹음) 사람을 도덕적으로 혹은 종교적으로 더럽히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서 이리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경우에 그 음식이 도덕적으로 저희를 불결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박운선).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막7:18)고 말씀하시면 마가복음 7장 19절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마15:11).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요 그 마음은 더러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18-19절). 그 더러운 마음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19절과 유사한 말씀인 마가복음 7장 21-23절에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교만과 우매함-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는 무슨 뜻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율법주의적이요 외식적이요 장로들의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에 씻지 아니한 손(부정한 손)으로 먹은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오는 모든 악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관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사람의 마음인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초점은 사람의 겉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23:25),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27-28절).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을 깨끗케 하는데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속마음을 깨끗케 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처럼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삼상 16: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 즉 마음을 깨끗케 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를 얻어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잠 23:19). 그리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얻어야만 합니다(17절). 만일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매우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마음속으로는 돈을 사랑하므로 탐욕속에서 죄를 범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눅 16:14).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부지런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잠4:10-11).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4절).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이요 또한 사람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시 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음이 더러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외식을 버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비극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요한복음 18장 38절).

저희 교회는 새벽기도회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먼저 합니다. 그 신앙고백을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문구가 나옵니다. 그 문구에 대한 배경 이야기 가운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8장 38절이 등장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왕이 아니냐”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37절). 그 때 빌라도는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나”(What is truth?)라고 물은 후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고 말했습니다(38절). 저는 요한복음 18-19장을 읽다가 이 빌라도가 18장 38절에서 뿐만 아니라 19장 4절 하반절과 6절 하반절에서도 자신이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고 반복해서 하는 말을 보고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빌라도는 자기 자신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이유는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18:38).

저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18-19장 말씀 중심으로 묵상하다가 두 부류의 사람들의 비극을 엿보게 되었습니다.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의 비극이란 바로 빌라도의 비극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19:6)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의 비극입니다. 빌라도의 비극이란 로마법에 근거해서 볼 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으므로 자기 자신에게서 죄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모르는 자가 거짓을 알겠습니까? 어떻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자신의 불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 영혼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유대인들은 어떨습니까? 그들은 빌라도와 달리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진 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였기에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다고 여긴 것입니다(7절). 즉,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여겼던 이유는 그들의 법, 그들의 관점에 근거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로마법에 근거해서 볼 때 예수님에게서 아무 죄를 찾지 못한 반면에 유대인들은 유대 법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볼 때 십자가형이 마땅한 죄를 찾아냈다는 사실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나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두 비극 모두 다 하나님의 진리의 법에 근거해서 자기 자신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진정한 비극입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길ियो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14:6).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진리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18:37).

저는 빌라도와 유대인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을 생각해 보았습니

다. 어떻게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이 있느냐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진리를 믿고 아는 우리들에게도 비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극이란 진리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죄를 찾으면서 나 자신의 죄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의 크고 많은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8:37). 그러기에 우리는 자신의 죄를 찾고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이의 모든 죄를 찾으면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기의(self-righteous)에 빠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하며 예수님의 공로를 무가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여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교회 밖에서의 비극보다 더 큰 비극입니다.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저는 성경 마태복음 4장 18-22절 말씀 중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에 대해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18, 21절) 예수님께서 저와 저를 부르시고 계시다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르심인 “나를 따라오라”(Come, follow me)는 말씀에 예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19절). 그 약속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였습니다(19절).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더 높은 부르심(Higher calling)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우리는 즉시 버려 둘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마치 그들이 그물과 배와 심지어 아버지 세배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처럼 우리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성경 마태복음 5장 1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라는 제목아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13절).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의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맛을 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소금의 맛은 무엇입니까? 바로 짠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 ‘주몽’을 보면 소금이 중요한 매매 수단으로 사용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마 그 옛날에는 노동의 삯으로 소금을 지급하고 또한 소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었나 봅니다. 봉급을 의미하는 영어 샬러리(salary) 역시 소금(salt)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인터넷). 그 정도로 소금은 매우 중요하고 귀하다는 말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소금처럼 매우 중요하고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들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며 또한 음식을 부패방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량의 12% 이상의 소금으로 절인 음식은 오랫동안 상하지 않고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또한 소금은 다음의 역할도 합니다(인터넷). (1) 신진대사를 촉진시킵니다. 소금은 음식물을 분해하고 노폐물을 배설 처리하는 신진대사를 주도합니다.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 할 때 혈액이 산성화 되고 면역성이 떨어져 각종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2) 적혈구의 생

성을 돕고 혈관을 청소합니다. 소금 섭취가 부족하면 소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철분이 부족하여 적혈구가 생성되지 않아 빈혈이 됩니다. 동맥경화 및 고혈압을 예방합니다. (3) 체액의 균형을 이룹니다. 염분은 수분을 적당하게 조절하여 신진대사가 산성이나 알칼리성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고 영양분을 흡수, 저장하게 합니다. (4) 소화를 돕습니다. 소금은 위와 장벽에 붙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장의 유동 작용을 도우며 장내의 이상 발효를 방지하여 장의 기능을 높여줍니다. 영양분이 체내에 골고루 공급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5) 해독과 살균작용을 합니다. 염분은 인체 내에 유해한 물질이나 세균이 침입하여도 세포와 혈관에는 침입하지 인체의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6) 해열과 지열 작용을 합니다. 찰과상으로 피가 나는 부위에 소금을 바르면 금세 피가 응고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금은 체내에서 해열과 지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7) 세포를 생산합니다. 소금은 죽거나 파괴된 세포를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물과 함께 좋은 소금을 섭취하면 신체에 활기를 주게 되는 것은 물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피부 트러블을 없애는 데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8) 미네랄을 공급합니다. 인체의 혈관을 정화시키고 소화 작용을 도우며 장의 기능을 도와서 단백질이 소변으로 배설되는 것을 막아주는 미네랄은 우리 인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인데 소금에서 적게나마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사람들인 이유는 우리는 이 세상을 복음으로 맛나게 하고 또한 인생 사회를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박윤선).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는 듯하지만 삶으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부정부패를 범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맛 잃은 소금과 같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치 맛 잃은 소금이 아무 쓸 데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아무 쓸 데 없는 사람들로 전락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의 맛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짠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결코 맛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닌 복음으로 이 세상에 맛을 내며 이 사회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수치를 아는 그리스도인

“...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스바냐 3장 5절 하반절).

스테판 씨맨츠는 그의 책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로 가져가라》에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죄책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것이다. 수치심은 우리가 말하거나 행한 어떤 것에 의해 유발되기는 하지만 우리 존재에 관한 것이다. 수치심의 핵심에는 자기 노출로 인해 느끼는 예민한 느낌이 있다”(씨맨츠). 우리 사람의 본능은 자기가 수치스럽게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자 포장합니다. 누군가 나 자신의 수치스러운 점들을 알까봐 노심초사 두려움 속에서 긴장하며,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자기의 수치스러운 점들을 여러 겹으로 포장하여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본능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볼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본인의 가치를 하찮게 보는 가운데 그러한 자신을 보호하고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진실을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함으로써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애씁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한 후 남을 타냈던 것처럼 우리는 주위 사람들과 환경 등을 타합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치심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빼놓아진 자아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력감을 느끼게 하며 또한 자신감을 잃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 수치심은 모든 중독성 행동을 부추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통스러운 자기 노출을 견뎌내기가 너무나 벅차기 때문에 위로와 인정을 받기 위해 마약, 일, 음식, 섹스, 기타 자신의 창조한 무감각의 세계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자신의 창조한 무감각의 세계로 빠져든 사람은 마음 깊은 속에 수치심의 썩은 뿌리는 존재하고 있지만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결국 착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수치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사람들에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고도 수치를 모릅니다. 그들은 성폭행 및 간음을 하고도 수치를 모릅니다. 그들은 살인을 저질러 놓고도 수치를 모릅니다. 세상이 온통 범죄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를 범하는 세상 사람들은 수치를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죄악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일조와 같은 헌금을 도둑질하고도 수치를 모르고 있습니다(말3:8).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추행과 폭행 및 간음을 하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성경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과 같다고 하였는데(요일3:15) 그러한 살인을 하고도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참으로 수치스러운 것은 그러한 위선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는 수치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마비되었고 우리의 얼굴은 너무 두꺼워졌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양심은 거짓과 위선으로 너무나 두껍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 스바냐 3장 5절 하반절인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치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는 자기 자신의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

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도 받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있습니다(2절).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치 않는데 있어서 너무 고집스럽습니다(박윤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2절)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좇지 아니하고 있습니다(1:6). 우리는 우리의 ‘바알(우상)’(4절)을 좇고 있습니다. 마치 재판장들이 뇌물을 받아먹는데 있어서 기탄없이 생각하여 받을수록 만족을 느끼지 않았던 것처럼(3:3) 우리는 돈을 우상화하여 좇으면서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죄는 마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경솔하고 간사했던 것처럼(4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진실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했던 것처럼(4절),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의 성결을 파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거짓으로 교회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고 있습니다(7절). 그러면서도 우리는 수치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새벽기도회 때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대에 날 부르소서”(찬송가 337장 1절과 후렴)를 반복하여 계속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였습니다: “주님, 수치를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들춰내시는 죄악을 직시하면서 수치심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는 저의 수치심을 가지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치의 나무에 돌아가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수치(부끄러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히 12:2) 별거벗기신 채 저주의 나무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신 21:23; 갈 3:13),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스바냐 3장 11절 상반절인 “그 날에 네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묵상 나눔 형제, 자매들, 우리 더 이상 우리의 수치를 숨기지 마십시오. 더 이상 거룩 하나님 앞에서까지 우리의 수치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수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수치의 나무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수치를 덮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기원합니다.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글

“네가 우리를 짓과 꼴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짓과 꼴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민수기 16장 13-14절).

우리 목사들은 성도님들의 비판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의 비판, 특히 안티 기독교인들의 비판의 목소리까지도 들어야 합니다. 다윗이 범죄 한 후 아들 압살롬을 피해 유다 광야로 도망갈 때에 베냐민 지파 시므온의 저주의 목소리를 들었던 것처럼(삼하16:5) 우리 목사들은 심지어 사람들의 저주의 소리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저는 민수기 16장을 다시금 읽고 묵상하면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을 걸었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13-14절 중심으로 민수기 16장 전체를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가 이 민수기 16장 말씀을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 그 깨달음 바대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성도님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어찌면 목사님을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을 비판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어찌면’이라 말씀 드리는 이유는 성경 민수기 16장에서는 ‘비판’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고 ‘거스르다(against, oppose)’(2,3,11절)와 ‘대적(opposition)’(19절)이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레위의 증손 고탓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이백 오십 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릅니다(1-2절).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11절). 과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요(출16:2,7) 그들을 거스른 것은 하나님을 거스른 것입니다”(민14:2,3,11).

둘째로, 과연 목사님들을 비판하는 비판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6장 13-14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무리들 중에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들인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면서(12절)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네가 우리를 짓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 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이기에 …”(13절 상반절). 과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낸 애굽이 ‘짓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과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낸 목적이 광야에서 그들을 죽게 하려는 것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단과 아비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한 것은 모세의 잘못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 역사를 극도로 악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불만과 원망의 소리를 낸 다단과 아비람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역사를 ‘작은 일’로 여기면서 광야에서 겪는 자신들의 역경을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2. “…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13절 하반절). 다단과 아비람의 말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까? 저는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방인 나라들은 왕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모세를 거스르는 소리에 전혀 타당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모세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려고 했겠습니까? 모세는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냈습니다. 오히려 분수에 지나치게(7절) 생각하고 행동한 레위 자손 고라가 스스로 높아져서 왕까지 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한 모세를 너무도 오해한 악담입니다.

3.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주지 아니하니 …”(14절 상반절).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주지 못한다고 단언했습니다. 전능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에도 어떻게 그렇게 단언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이요 그들의 교만입니다.

4. “…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14절 하반절).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기를 맹종케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불순종하고 교만한 다단과 아비람은 이러한 비판을 합당하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이처럼 다단과 아비람의 지도자 모세에게 대적하던 말을 보면 그들이 타당한 근거 없이, 합당하지 않은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셋째로, 우리가 다 함께 옆드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레위 자손의 고라와 그 무리들이 당을 짓고 일어나서 자기를 거슬렀을 때 모세는 옆드렸습니다(1-4절). 자기와 자기의 형 아론에게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

료”(3절)라는 말을 듣고 모세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기도에서 문제 해결을 보려고 하였습니
다. 이러한 결단성 있는 행동은 모세가 그들을 말로 이기려고 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은 오
직 기도 밖에 없음을 알고 직접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모
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것이 민수기 16장 22절과 45절에 두 번 더 나옵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 하매(19절)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자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했을 때(21절) 모세와 아론은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22절).
하나님께서 고라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온 회중에게 진노하지 말아주시길, 그러므로 그들
을 다 멸망시키지 말아주시길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22절). 그러나 하나님
께서는 모세와 아론의 만류하는 기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라당을 멸망시키셨습니다
(31-33절, 박윤선). 그리고 고라와 함께 하였던 이스라엘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명(2절)
도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그 사람들을 다 소멸 당하였습니다(35절). 그런데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할 때(41-42절) 하나님께서 그 모든 회중
을 순식간에 멸하려고 하셨습니다(45절). 그 때 모세와 아론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
다(45절). 이렇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모든 문제와 난관들을 해결해 나아갔습
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교회 안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문제와 난
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므로 그 모든 문제와 난관들을 해결해
나아가야 합니다. 목사님들도 기도해야 하며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가
운데서 비판과 원망과 거스른 소리가 서로 오고 가기보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6-27절).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배우고(learner) 또한 예수님을 좇는 자(follower)들입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배우고 예수님을 어떻게 좇아야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참된 제자 도를 배워서 예수님을 올바르게 좇아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좇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좇음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식구들의 생명까지도 미워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십시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식구들을 더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좇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좇는 우리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에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 식구들로 인하여 그 부르심을 사양 (참고: 18-20절)한다면 성경은 우리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26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식구들을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므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사랑하는 예수님을 좇음에 있어서 우리 가족 식구들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우리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과 심지어 우리 생명까지도 주님께 받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우리 가족 식구들과 우리 생명을 더 사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좇음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좇음에 있어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기를 거부하면서 예수님을 좇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걸으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으면서 온갖 고난을 감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익숙하기보다 편안함이 익숙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이 더 잘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보다 십자가 장식품을 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보이지만 내면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들이시라도 예수님께서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는데(히5:8) 우리는 고난을 통해 순종함을 배우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불순종하는 모습을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좇음에 있어서 예산을 단단히 가지고 예수님을 좇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8-32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이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좇음에 있어서 예산도 가지지도 않고 좇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좇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주님께 헌당한다고 하면서 예배당을 건축하고자 하기 전에 건축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시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배당 기초만 쌓고 능히 예배당 건축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재정난을 겪으면서 성전 건축을 도중에 중단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예산을 충분히 가지지도 않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좇겠다는 열정적인 마음으로만 주님 가신 길을 걸겠다고 헌신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좇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한 나라가 또 다른 나라와 전쟁함에 있어서 상대방 나라의 군인 숫자를 알아보고 과연 그 나라를 대적할 수 있을지 헤아려 볼 것입니다(31절). 그런데 만일 대적 나라의 군인 숫자가 이십만 명인데 자기 나라의 군인은 십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상대방 나라를 능히 대적할 수 없을 줄 알고 대사를 보내 화친을 청할 것입니다.(31-32절) 만일 그 나라가 기드온의 삼백 명 군사 이야기만을 믿는답시고 군사 숫자가 상대방 나라보다 반밖에 되지 않으면서 대적 나라와 전쟁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믿음에서 나온 용기라기보다 무식함에서 나온 만용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우리를 대적하러 오는 자를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지 먼저 헤아려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예산을 단단히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산이란 것은, 확실한 소망을 위하여 확실한 희생을 결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박윤선).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좇음에 있어서 단단히 희생할 결심(각오)을 하였습니까?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좇음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버릴 각오를 하였습니까?(33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얻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과 더불어 모든 영적인 축복을 이미 받아 누리고 있을진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좇음에 있어서 모든 소유를 버릴 결심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좇음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식구들의 생명까지도 미워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좇음에 있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을 좇음에 있어서 예산을 단단히 가지고 예수님을 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올바르게 좇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로 세움을 받길 기원합니다.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 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잠언 17장 27-28절).

진정한 1등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과 특성이 필요한 것일까요? LG 경제연구원에 이 질문에 대해 리더십 전문가인 Tomas J. Neff와 James M. Citrin이 쓴 책 《Lessons from the Top》에서 사업을 1등으로 이끌고 있는 성공 리더 50명의 15가지 공통 자질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가지 자질들 중 단지 3가지만 지적 혹은 기술적 능력과 관련되었을 뿐, 대부분이 소프트한 차원의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를 기반으로 한 태도나 의지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성지능이란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타인과 좋은 관계(Good Relationship)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감성지능이 점차 기업 경영의 현장에서 특히 향후 리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경영 환경이 변화하는 속도만큼이나 조직 구성원들의 가치관 또한 너무나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리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을 제대로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들과 밀접한 상호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풍부한 감성지능을 바탕으로 한 감성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구성원들의 필요성을 충족시킬 수 있고 만족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성원들이 열정을 다해 일에 몰입하게 함으로써 높은 성과 창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조직 차원에서 보면 리더와 부하직원간의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인간적 유대감은 신바람 나게 일 할 수 있는 직장 내지는 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해 줍니다. 이에 대해서는 Daniel Goleman이란 심리학자가 성공적인 리더와 그렇지 못한 리더 간의 차이는 기술적 능력이나 지능지수(IQ)보다 감성지능(EI)에 의해 크게 좌우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합니다. 약 80% 정도의 감성지능과 20% 정도의 지적 능력이 적절히 조화를 이룰 때, 리더는 효과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인터넷).

그러나 저는 Daniel Goleman이란 심리학자의 주장과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만일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감성지능 80%가 필요하고 지적 능력이 20%가 필요하다면 제 생각엔 그 20% 지적 능력이 80%의 감성지능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효과적인 리더십에는 감성보다 지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식에 근거하지 않은 감성은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참고: 롬10:2). 즉, 저는 감성은 지성에 이끌림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생각에 근거는 성경 잠언 19장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저는 오늘 본문 잠언 17장 27-28절 중심으로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말을 자제(억제)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7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A man of knowledge uses words with restraint).” 지혜자 솔로몬 왕은 지식이 있는 자는 말을 아낀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을 아낀다’라는 말의 의미는 ‘입을 자제한다’(restrain mouth)입니다(Brown).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지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입을 자제합니까? 그 이유를 우리는 잠언 10장 19절에서 찾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지식(지혜)있는 그리스도인이 말을 자제하는 이유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이 많으면 허물이(죄가)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목사나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들은 입을 열어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그 대답을 야고보서 3장 1-2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들 같은 경우는 말을 말에 해야 하겠지만 실수가 없도록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해야 합니다(막5:48).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추구하기 위해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2장 21절 상반절에서 하고 있는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들은 남들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은 말씀을 우리가 먼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이러한 온전함 속에서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나 교회 성경공부 선생님들에게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 대답을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즉,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말하기를 더디 하고 듣기를 속히 해야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을 배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말씀 듣기(롬10:17)를 속히 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 고민 하나가 바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 고민은 제 기억으로는 대학교 3학년 때 부터인가 했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 동아리에서 섬기면서 여러 지체들을 접했는데 너무나 많은 때에 제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 마음이 괴로워 항상 학교 아파트로 돌아와서는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은 누구누구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잠들곤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또 제 입을 절제하지 못하고 조금하게 말을 내 뱉으므로 원치 않게 여러 지체들의 마음의 상처를 준 것이 기억납니다. 이러한 자를 가리며 성경 잠언 29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언어에 조금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요즘은 그 때 대학생 때 보다 언어에 조금하지 않으려고 한 번 더 생각하고 또한 고민하고 말하려고 노력을 하곤 있지만 잘 안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좀 더 신중하게 입을 열어 말을 하되 될 수 있는 데로 말을 적게(few words)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26:22). 특히 저에게만 나눈 상대방의 기도 제목도 그 사람 허락 없이는 아무리 서로가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입니다. 또한 아무리 칭찬이라도 진솔하게 하되 과장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며 특히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을 억제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에게 관대하되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지 않게 자아성찰하면서 균형 있게 자아비판하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눈다면 잠잠할 때 잠잠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8절을 보십시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을 생각할 때 좀 웃음이 나오면서도 이렇게 못하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우고 그 입술을 닫히면 슬기로운 자로 여기우느니라.”

둘째로,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 침착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27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and a man of understanding is even-tempered).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한다면 ‘명철한 자는 성품이 냉철합니다’입니다. 여기서 ‘성품이 냉철하다’라는 말은 성품이 침착하다는 말입니다(박윤선). 여러분,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 “Be cool!” 이 말의 뜻은 “침착하세요!”입니다. 이 말은 주로 상대방이 흥분해 있을 때 ‘당신 좀 침착하세요’라는 의미해서 사용되는데 오늘 본문 잠언 17장 27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품이 냉철하다/냉정하다/침착하다’라는 말의 문자적 의미는 ‘cool of spirit’(영혼의 침착함)이란 뜻입니다(Walvoord). 이 말은 명철한 자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이 침착하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 New International Version(NIV)을 보면 오늘 본문 잠언 17장 27절 후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품이 ‘냉철하다’는 말은 ‘even-tempered’라고 번역했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성격이) 침착한’이지만 우리가 ‘temper’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걸핏하면 화를 내는) 성질’(네이버 사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즉, 침착한 성품이란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4장 29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한 사람이지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미련함을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은 크게 명철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걸핏하면 화를 내는 사람입니까?

성경 잠언 17장 12절에서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미련한 자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왜 미련한 자가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더 위험합니까? 그 이유는 미련한 사람이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분노할 때 들 합리적(이성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련한 자가 분노할 때 새끼 빼앗긴 암곰보다 들 합리적(이성적)이라면 만일 이러한 미련한 자를 우리가 만났다면 그 사람 앞에서도 과연 저와 여러분은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지식(지혜)있는 그리스도인은 가능합니다. 그 영혼이 침착한 그리스도인은 비이성적인 사람 앞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으며 또한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모던 시대고 합니다. 이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즉,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가치 또는 규범)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은 바로 "감성주의"입니다.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성보다 감성을 더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영역에서 감정적이며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며, 자신의 감정에 지배되어 감정이 흘러가는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성경과 교리의 기초 위에서 신앙을 세워가기보다는, 체험이나 신비 또는 느낌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있어서도 감정적인 부분이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인터넷). 그러나 오늘 본문 잠언 17장 27-28절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감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보다 지식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침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절제하여 말하기를 더디 해야 하며 말을 해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서 입을 열어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침착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좀 냉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여 침착하게 대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당한지라” (요나 1장 7절).

과연 우리들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입니까?

저는 성경 요나서 1장 7-1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 질문들을 통하여 세 가지 교훈을 받고 제 삶 속에 적용해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 교훈은 이렇습니다:

1.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내실 때에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께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
2. 다른 사람을 비난(탓)하지 말 것, 그리고
3. “내 탓이로소이다”하면서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쓰는 것.

이 교훈들을 제 자신에게 비춰볼 때 제 안에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탓)하면서 각자 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죄악된 경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있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죄악된 경향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우리 각자 자신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다른 사람이나 우리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탓해서는 안 됩니다. 만일 당신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죄악된 선택을 합리화하면서 남을 탓하고 처한 상황을 탓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히 당신은 피해 의식 속에서 자기 연민과 자책감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무책임한 자세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면서 무책임한 발언과 행동을 서슴없이 행하고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무책임한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리라 당신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질문의 대답을 저희 교회 지도자 성경공부 때 요나서 1장 7-17절 말씀을 공부하면서 좀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깨달음이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느느웨가 아닌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하는 가운데(2-3절) 징계의 폭풍을 받아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상황에서도(4절) 무책임하게 배 밑층에서 깊이 잠든 요나에게(5절) 책임을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요나로 하여금 비신자 선장과 사공들 앞에서도 죄를 고백케 하시며 회개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하나님의 책임 있는 행하심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랑 가운데서 무책임하게 깊이 잠든 요나 선지자에게 어떻게 책임 있게 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이방인(비신자) 사공들로 하여금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게 하시사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인정케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공들이 제비를 뽑아 자기들이 만난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자신들에게 임하였나 알고자 했을 때 요나로 하여금 제비뽑기에 당하게 하시므로 말미암아 그로 하여금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인정케 만드셨습니다(7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공들의 네 질문들을 통하여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을 들춰내셨습니다.

그 네 질문들이란 무엇입니까?

첫째로 “이 재앙이 무슨 연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8절) 이었습니다. 이 첫 번째 사공들의 질문은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무책임한 행동인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므로 온 재앙임을 인정케 만드는 질문입니다. 요나는 자기 자신 때문에 폭풍이 임하여 배가 다 거의 깨지게 된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을 탓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접한 환경을 탓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탓할 사람은 자기 자신 밖에 없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사공들의 질문은 “네 생업이 무엇이나”(8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공들로 하여금 “네 생업이 무엇이나”라고 질문케 하시므로 말미암아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자신의 선지적 책임과 사명을 회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명의식과 소명의식이 상실한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책임 있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셋째로, 이방인 사공들의 질문은 “어디서 왔으며”(8절)였습니다. 이 질문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니느웨를 기억케하였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대로 니느웨로 가야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방향으로 도망하고 있었기에 이 이방인 사공들이 “어디서 왔으며”란 질문은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도망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직시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사공들의 질문은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8절)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하여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야 할 책임을 기억케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만나는 비신자들의 질문들을 통하여서라도 우리의 불순종하고 있는 범죄를 들춰내시고 깨닫게 하시며 결국은 인정케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지 않으십니까? 결국 요나는 이방인 사공들 앞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는 히브리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의 하나님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고백하면서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습니다. 그 때 사공들은 심히 두려워하는 가운데 요나에게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양심에 찢리는 비신자들의 면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다는 점점 더 흉흉해질 때 이방인 사공들은 요나에게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11절). 그 때 요나의 대답을 들

어 보십시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요나는 자기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이방인 사공들이 큰 폭풍을 만난 것임을 알았기에 그리고 흉흉한 바다를 잔잔케 하는 방법은 오직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져야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요나는 사공들에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책임 있는 행동만이 이방인 사공들을 살리는 길임을 요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공들도 사용하셔서 요나 선지자로 하여금 자신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행동을 들춰내시고, 결국 요나로 하여금 자신의 불순종함을 인정케 하셨습니다.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비신자들을 통하여 우리들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죄를 인정케 하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무책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무책임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요나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요나가 타고 있던 배가 거의 다 깨지게 되어 그 배의 이방인 선장과 사공들에게 피해를 준 것처럼 우리 신자들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 주위에 있는 비신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비신자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행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무책임한 불순종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의 ‘폭풍’이 임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요나처럼 회개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마치 요나가 자기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사공들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바다에 던져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입술로 자백하는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를 회개했음을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로 말미암아 비신자들에게까지 임한 ‘이 큰 폭풍’(12절)이 멈출 것입니다. 그리할 때 흉흉한 바다는 잔잔케 될 것입니다(15절). 그리할 때 이방인 사공들처럼 비신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것입니다(16절). 그리고 그리할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 안에 들어가(17절)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며(2:4) 하나님께 기도하므로 말미암아(1절)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10절).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그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책임지는 그리스도인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느헤미야 10장 28-31절).

한 고용주가 일할 사람(종업원)을 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원자들이 많이 모여서 한 명씩 인터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 한 지원자와의 대화입니다(인터넷): 고용자가 말했습니다. “이일은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 말아야 합니다.” 그러자 지원자가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난 직장에서 무슨 잘못된 일만 생기면 사람들이 모두 제 책임이라고 말했거든요.” 참 어이가 없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유머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책임을 질 줄 모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직책을 맡아 주님을 섬기려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야?(Who are They anyway?, BJ 갤러거·스티브 벤추라 공저)》란 책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절묘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책임 회피형 인간'(professional victims)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질문 중 하나는 '책임 회피형 인간'을 '책임지는 인간'으로 바꾸는 방법에 세 가지 해답을 제시합니다. 가장 짧은 해답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 긴 해답은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 밖에 없다는 것이며, 조금 더 긴 해답은 직접 바꿀 수 있는 것은 자신 밖에 없다. 하지만 당신이 앞장서서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책임감(ACCOUNTABILITY)'이라는 단어의 알파벳을 풀어, 우리가 책임감을 구현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사항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인터넷):

- A (인정): Acknowledge the situation (상황을 인정하라)
- C (용기): Courageously face the difficulties (어려움에 용감하게 맞서라)
- C (대화): Communicate with positive language (긍정적인 말로 대화하라)
- O (내탓): Own the problem ... and the solution (문제도 해답도 다 나에게 있다)
- U (이해): Understand others' viewpoints (다른 사람의 시각을 이해하라)
- N (협상): Negotiate solutions that work for everyone (협상으로 윈-윈 해결책을 찾아라)
- T (책임 떠맡기): Take on new responsibilities (새로운 책임을 기꺼이 떠맡아라)
- A (실천): Act, don't simply react (수동적인 모습에서 벗어나, 실행하고 실천하라)
- B (유연한 대처): Be willing to reassess and renegotiate (재평가와 재협상에 유연

하게 대처하라)

I (긍정적인 영향): Influence others and collaborate (주위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협력하라)

L (무기력증 탈피): Leave the 'poor me' victim mentality behind (남 탓하는 무기력증에서 탈피하라)

I (주도적 태도): Initiate thoughtful and deliberate solving (깊이 생각하여 문제 해결을 주도하라)

T (자부심): Take pride in your results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Y (예스 마인드): 'Yes' leads to success (예스!라는 말이 당신을 성공으로 인도한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책임회피 형이 아닌 책임형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28-31절 말씀 중심으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 아래 우리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본문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상 것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28절을 보십시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 느헤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모든 일’ 때문입니다(9:38). 느헤미야 9장 3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인하여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치나이다 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조가 과거에 자주 범죄하고 벌 받은 사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회중은 ‘이 모든 일’ 때문에 지금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한 후 이스라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을 쳤습니다(9:38). 그 명단이 느헤미야 10장1-27절에 나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과거에 하나님 앞에 범한 죄들과 하나님께 받은 벌을 회고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되겠다는 결심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고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싸인)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계명)을 준행하는 것이었습니다(28절). 이스라엘 회중은 지금 수문광장에서 말씀의 부흥을 경험하면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열조와 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 범죄치 않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오직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결심을 하였는가 하면 그들은 ‘만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 자신들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는 ‘저주로 맹세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심하였습니다(29절).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부흥의 열매입니다.

그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으로 옮긴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방 사람과 절교하는 것이었습니다(28절). 그 이유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

하지 않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에스라 6장 21절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무릇 스스로 구별하여 자기 땅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무리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다 먹고.”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많이 보내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불신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신자들과 교제가 많을 때에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만일 불신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면서 그들이 즐기는 세상 것들을 함께 즐길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눈에 가시”와 여러분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여러분을 괴롭게 할 것입니다. 성경 민수기 33장 5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 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그러나 안타까운 현실은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옆구리에 ‘가시’를 차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기에 그의 신앙생활 괴롭고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어찌 세상과 짝지어 살면서(절교를 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자라나길 바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언젠가 여기 미국에서 한인 노인들을 태우고 카지노를 가던 관광차가 소방차가 부딪혀서 한 사람이 사망하고 약 50명이 다쳤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저는 그 때 뉴스에서는 한인 타운에 노인들의 도박 중도성이 점점 심각해짐을 지적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나 술, 또한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과 성중독에서 헤어 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중독되고 있습니까? 한국 마약 퇴치운동본부에서 나온 글 중에 “[도박 중독] 처음엔 한두 푼...결국엔 무일푼”란 글에서 중독되는 이유를 몇 가지 찾아보았습니다(인터넷):

1. 첫 번째 원인은 사회 환경을 들 수가 있습니다.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하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 많은 사회 환경도 도박중 독증을 부추기는 한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조절능력이 부족한 청소년기에 노출되면 헤어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병처럼 돌고 있는 “한탕주의”도 도박이나 복권 중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입니다.

2. 두 번째 원인은 성격적인 요인을 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대개 스킬을 추구하는 사람이 쉽게 중독됩니다. 끝없이 새롭고, 강렬한 자극을 필요로 하는 ‘탐닉형’ 성격의 소유자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3. 세 번째 원인은 우울증을 들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도박 중독에 빠지기 쉽다’고 한국 마약 퇴치본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4. 네 번째 원인은 현실도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실도피적인 사람들이 중독의 위험이 큰 이유는 그들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으로 친구가 별로 없고 사회활동도 미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5. 또 한 가지는 의학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도박 중독은 의학용어로 ‘병적 도박’ 혹은 ‘도박광’이라 불린다고 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지만으로 고칠 수 있는 습관이 아니라

일종의 충동조절장애. 즉 도박에 대한 욕구가 강해 자기 스스로 행동을 절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등과 비슷한 원인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체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지만 뇌 기능장애의 일종인 셈이라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 상태에 빠지면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바로 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도박하는 재미에 한번 빠지면 온통 그 생각뿐입니다. 같은 흥분을 얻기 위해서는 도박을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야 하고 거는 돈의 액수도 점점 커져야 합니다. 결국 웬만한 액수에는 눈 하나 깜짝 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무서운 증상은 금단 증상으로서 대부분의 도박꾼들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가정과 직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일시적으로 자제하려는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금단 증상으로 번번이 실패하기 마련. 도박을 하지 않으면 초조하고 불안해 안절부절 못하고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러다 도박을 하는 순간부터는 불쾌한 기분이 사라지고 다시 흥분 상태가 됩니다. 이 같은 증상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끊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이러한 중독 현상의 문제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 것을 끊어야 하는 책임이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악행으로부터 어떻게 헤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아예 처음부터 발을 들여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이미 발을 들여 놓아 맛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고린도후서6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끊기는 어렵다. 일단 도박에 중독되면 자기 의지로 끊기는 쉽지 않다. 다른 중독증과 마찬가지로 도박을 끊으면 우울증, 불안감, 불면증 등의 금단 증상을 보이기 때문. 술기운이 떨어진 알코올 중독자가 다시 술을 찾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도박증세를 보일 땐 가능한 빨리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한다. 중독자는 도박을 절대 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족 등 주변 사람이 강제로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인터넷). 중독에서 빠져나오려면 오직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육신이 마음을 지배하는 삶을 버리고 마음, 곧 영이 육을 지배하는 삶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풍부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지식과 총명’을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계명)을 깨달아 알아가므로 그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것을 끊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죄에 중독된 인류를 치료하기 위해 오신 의원이신 예수님에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자녀의 결혼을 책임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0절을 보십시오: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요즘 자녀 결혼 시키는 것 얼마나 힘들습니까?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책임연구원·가족학 박사인 배선희 박사는 「결혼 안하든 늦든 다그칠 일 아니죠」란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딸이 서른이 다 되어가는데 결혼은 생각도 하지 않고 있어요. 걱정이 되어 결혼 말을 꺼내기만 하면 심하게 화를 내고 급기야는 싸움이 되어 말하기도 겁이 나요. 그냥 내버려두자니 때를 놓쳐 시집도 못가고 평생 혼자 살게 되는게 아닐까 걱정이 되고... 딸 결혼 생각만 하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적령기를 지나고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둔 부모들

의 대부분은 이런 걱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잘 키워서 적절한 시기에 좋은 사람과 결혼시키는 것을 자신들의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로 생각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이런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죽하면 '결혼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는 말이 있기까지 하겠습니까? 그만큼 부모들은 자녀의 결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자녀 결혼시키는 부모님의 책임이 막중합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으로서 아들, 딸을 결혼 시킨다는 것은 큰 책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결심은 자기 자녀들의 결혼을 책임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주신 신명기 7장 3-4절 말씀대로 돌아가겠다는 회개 운동이었습니다(박윤선). 성경 신명기 7장 3-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간의 결혼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성경 에스라 9장 2절을 보십시오: “그들의(이방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 이 죄악에 지도자들이 더욱 앞장을 섰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결혼에 대한 결심을 지금 말로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불신자하고 결혼 시키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같이하지 말라 ...” 왜 하나님이 그러한 계명을 주셨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불신자들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신 7:3-4). 우리 주위에 불신자와 결혼하여 전에 다니던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질문은 과연 신자들끼리 결혼시키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떤 자매가 통계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 믿는 처녀 자매들이 형제들 보다 많은 때 어떻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이 다 가능한가라는 식의 질문을 저에게 던진 기억이 납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녀 결혼은 믿음으로 시키는 것이지 통계학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녀 결혼시키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부될 사람을 택할 때에,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 중에서 택하려 하지 않고, 멀리 자기의 고향인 메소포타미아로, 그의 종 엘리에셀을 보러 택하여 오게 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결혼 문제에 있어 얼마나 신중하게 고려하였는가를 보여 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인 창세기 24장 7절 말씀을 순종하였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 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낼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지니라” 오늘 우리들도 결혼 문제를 이처럼 신중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결혼 문제

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행할 것이며, 불신자와의 결혼은 단연코 거절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녀 간 신자로서 금전, 명예, 지위, 용모 등 허영에 끌려 불신자와 결혼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이처럼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결혼을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않는 가정은 무너질 위험을 염려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 책임지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0장 31절을 보십시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철 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말씀의 부흥 가운데 결심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 시대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절교한 후 하나님의 율법을 좇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과 더불어 모세의 십계명 중 4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31절).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겠다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의 이방인 백성들이 “물화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안사겠다는 결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 칠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즉 칠 번째 되는 해 1년 동안은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땅을 두겠다는 말입니다(그러므로 땅이 비옥해 짐). 그 뿐 아니라 그들은 그 해에 채무자들의 빛을 탕감해 준다는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들은 다시 한 번 경제적 기반을 새로 닦아 나아갈 소망과 기회를 얻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에는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매매 자체를 정죄함이 아니고 육신의 안식을 방해할 정도로, 또는 신령한 예배에 지장을 줄 정도로 취해지는 상업 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육신이 쉰다는 것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정지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날에 쉰다는 것은 세상 일로 인한 고역을 하지 않고 육신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평안을 누림을 가리킵니다(박윤선).

우리는 안식일인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저는 자라나면서 주일 돈을 쓰면 안 되는 것으로 배우고 자라났습니다. 언젠가는 주일에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것도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신학교 가서 바뀌었습니다. 한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주일 돈을 사용하는 것, 즉 매매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담임 목사가 된 후 주일 매매하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소속돼 있는 PCA(Presbyterian Church of America) 헌법 48장을 보면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주일을 기억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며 주일이 닦이기 전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 모든 세상일을 정리하여 합당한 때에 중지하여,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48:3). “온 하루를 온전히 주께 드리는 날로 지켜야 하며 공적이나 사적으로나 신앙적 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온 종일 불필요한 노동으로부터 거룩하게 쉼을 얻어야 하며, 다른 날에는 합당하게 여기는 오락일지라도 삼가며, 또한 할 수 있는 한 세속적인 생각이나 대화를 피해야 한다”(48:4)이 얼마나 도전적입니까? 주일을 닦이기 전에 미리 준비한다는 것, 얼마나 우리는 습관화 되어있습니까? 오히려 주일날 몰아서 주중에 못했던 것을 다 하려고 하

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못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일 날 오락을 삼가야 하는데 오히려 주일 날 오락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 12대 대통령 재커리 테일러 장군은 헌법에 의거, 1849년 3월4일 대통령에 취임해야 되는데 그날이 주일이라 취임을 거부하여 에치슨 상원의장이 24시간 대통령 임무를 대신했습니다. 주일성수는 대통령 취임식보다 우선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인터넷).

법정 총기난사 살인범인 브리언 니콜스(33)에게 인질로 잡혔던 26세 미망인 애설리 스미스는 니콜스에게 릭 워렌 목사님의 저서 “목적이 이끄는 삶”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 ‘Day 33’에 나와 있는 진실한 종의 행동지침을 읽어주면서 애설리 스미스는 니콜스에게 이렇게 설득했다고 합니다: “나를 인질로 잡게 된 일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며, 살인행위로 인해 가게 될 교도소에서의 전도활동이 당신의 삶의 목적임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이를 들은 후, 니콜스는 이성을 잃은 살인마에서 중심을 잡은 사람으로 돌아왔으며, 급기야 애설리를 풀어주고 순순히 투항했다고 합니다(인터넷). 이것이 바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너무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버리고 책임지는 삶을 살아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을 지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세상과 절교하지 못하고 짝지어 죄를 거듭 범하는 우리를 위하여 가정의 자녀 결혼 등 자녀 양육에 책임을 못 지는 우리를 위하여 성수주일을 하지 못하고 주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구원을 책임지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결백을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베스도가 도입한지 삼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새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미구에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팔일 혹 십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 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심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가로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사죄를 범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의 나를 송사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누구든지 나를 그들에게 내어 줄 수 없삽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호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가로되 내가 가이사에게 호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립바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라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저희가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 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을 어떻게 사실할는지 의심이 있어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심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 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립바가 베스도더러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가로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사도행전 25장 1-22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흠을 잡고자 하면 흠 없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취모역자[吹 : 불 취, 毛 : 털 모, 覓 : 찾을 먹, 疵 : 흠 자]’라고 합니다. 남의 약점을 약착같이 찾아내려는 야박하고 가혹한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흠 잡히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취모역자하는 사람에게도 약점을 잡힐만한 것이 없다

면 그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청렴결백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맑고 깨끗하며 탐욕이 없는 사람입니다(인터넷).

오늘 성경 본문 사도행전 25장 1-22절을 보면 참으로 청렴결백한 사람인 바울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 사도행전24장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복음을 대적하고 바울을 대적하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바울의 허물을 들춰내고자 그를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하되(1절) 바울을 가리켜 ‘염병’이요, 유대인들 소요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요 또한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5-6절)라고 주장하였지만 바울은 결백하였습니다. 그는 취모역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 내용에 관하여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결국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 증인이나 물증도 없이 그저 바울을 제거하려고 거짓된 주장을 폈으므로 결국 재판은 미뤄졌고 오히려 부정부패하였던 총독 벨릭스는 결백한 바울을 풀어주기보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가이사라 어느 감옥에 약 2년 동안 구류했습니다(27절). 부정부패했던 유대 총독 벨릭스에게 복음과 더불어 복음에 합당한 도덕 생활에 대하여 권면하였던 바울은 아무 죄가 없는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억울하게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구류돼 있었습니다(27절). 그러다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에서 사도 바울은 2년 후 총독 벨릭스의 후임인 베스도란 인물이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아마 장로들)에게(25:2) 또 다시 고소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바울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그에게서 흠을 찾고자 새로운 총독 베스도에게 고소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이들은 끝없이 바울에게서 흠을 악착같이 찾아내서 고소하여 결국 바울을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을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였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가이사라에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3절).

성경 사도행전 23장에서도 약 40여명이 바울 죽이기 금식 결사 대원들도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제거하려고 했었는데 (12-13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5장에서도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바울을 제거하려고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매복해 있으려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안타깝습니다(3절). 그것을 볼 때 참으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끈질긴 노력과 그들의 살기는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포기하지 않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 총독은 이 바울을 죽이려는 대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바울이 있는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바울을 송사하려면 하라고 말하였습니다(5절). 결국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있는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을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7절). 다시 말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소를 했지만 그 고소들은 입증되지 못할 내용 이었습니다(유상섭). 그 때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8, 10절). 바울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무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총독 베스도 앞에서 또한 거기 모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총독 베스도도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으며, 불의를 행한 일이 없는 줄을 알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이러한 바울

의 결백은 총독 베스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립바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을 때(13절) 총독 베스도는 아그립바 왕에게 한 말에서 그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고들이 서서 나의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사건은 하나도 제출치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송사하는 것 뿐이라”(18-19절). 총독 베스도도 바울이 악행의 사건을 하나도 범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메시지로 인하여 바울을 송사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였으면 죽기를 사양치 아니할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였습니다(11절).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자기의 결백을 담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생명을 걸고 자기의 결백을 담대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며 흠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흠 잡힐 만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우리를 털어서 먼지를 찾아내고자 할지라도 우리는 먼지 하나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결백한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합니까? 참으로 여러분들 귀에는 불가능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진공청소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지를 흡수하여 제거해 주는 진공청소기, 그 청소기를 생각하면서 저는 제 신앙생활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제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먼지가 많은 사람이 제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내 자신의 결백을 담대히 주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진공청소기’가 생각났습니다. 그 영적 진공청소기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마치 진공청소기 안에 있는 필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먼지를 다 잘 흡수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진공청소기의 최고의 필터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가 십자가에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 안에 죄악 된 먼지들이 다 없애 주고(사해주시고) 새롭게 해주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능력 안에서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 흠이 없고 순전한 투명하고 정직하고 결백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이 있길 기원합니다.

성의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공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두목이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과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것을 주되 그 구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구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느헤미야 12장 44-47절).

여러분, 성도를 품고 사랑하는 목회자, 목회자의 숨은 고충을 가슴 깊이 끌어안는 성도, 이해와 사랑으로 세우는 교회를 꿈꿔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목회자의 현실은 목회자는 보통사람보다 더 높은 삶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인들이 전체의 80퍼센트에 이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그와 같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목회자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인터넷).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회자에게 거는 기대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해와 사랑으로 세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 문을 열고 대화하며 서로를 알아가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성의를 보여야 합니다.

저는 오늘 느헤미야 12장 44-47절 중심으로 성의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목회자나 성도님들이나 주님 앞에서 주시는 말씀을 잘 경청하여 노력하는 가운데 이해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에서 찾는 성의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성의를 보이는 목회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45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여기서 “힘썼으며”(performed)라는 말은 “주의하다, 보호하다, 지키다, 준수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근원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매우 신경을 써서’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동사와 합성어일 때에는 ‘조심히 혹은 부지런히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언약이던 율법의 책임이던 시간에 매우 조심히 주의하여 감당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돌보다, 보호하다'란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중요시하다, 주의/유념하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성곽이 재건 된 후 성전에서 섬겼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성전에 관하여 무엇을 매우 신경 썼을까요? 과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어떠한 일에 더욱 더 성의를 보였습니까?

1.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45절을 다시 보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만일 목회자가 하나님을 예배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예배하는 일을 힘쓰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일 목회자가 성의 없이 준비하여 예배를 인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예배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지키며, 주의하며, 매우 신경을 써서 보호해야 합니다.

2. 그들은 결례의 일을 힘썼습니다. 45절을 보십시오: “저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 “결례의 일”이란 느헤미야 12장 3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케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니라.” 우리는 자신의 정결과 가정의 정결 더 나아가서 교회의 정결에 힘을 써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는 자기 자신과 가정을 정결케 해야 하며 교회에 관하여서는 예배의 정화를 힘써야 합니다.

세계 교회가 놀랄 정도로 경이적인 성장을 한동안 거듭했던 한국 교회 1980년대부터 성장이 멈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목회자의 설교권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대를 올바르게 내다보지 못한 목회자들의 안이한 자세와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여기저기에서 제기되면서 더 이상 목회자의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도출되기 시작했다는 지적입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의 철저한 자기갱신과 회개만이 무너지고 있는 강단을 살릴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목회자들의 올바른 목회를 바탕으로 교인들에게 올바른 예배를 강조하고 이것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예배는 철저히 본질에 맞추어 드러져야 하며, 예배 회복을 이루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신학자들은 지적합니다. 예배와 설교의 목회계획이 교회의 양적인 부흥에 바탕을 둔 목회현장에 대한 갈급함만으로 치우질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살피고 성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목회계획을 수립하는 목회자의 주의를 요구됩니다. 결국 목회자의 권위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며 도덕적인 것으로, 목회자의 경건한 생활과 설교를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는 목회자는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김남준). 그러나 지금 우리는 목회자가 존경 받지 못하는 시대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중 하나는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에 나오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예배하는 일과 결례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것을 배워야 합니다. 특히 이들의 모범 중에서 한두 가지 적용할 만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1. 첫 번째 원리는 팀워크(team work)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45절을 보

십시오: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 현대 말로 해본다면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들 그리고 성가대/찬양팀과 안내 위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과 성전을 정결케 보존하는 일에 힘을 썼다는 말입니다.

2. 두 번째 더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 순종입니다. 45절을 보십시오: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의 명을 좇아 행하였으니.” 오늘 말로 하자면 지금 교회의 목회자들과 또 다른 섬기는 자들과 한 팀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과 자기 자신과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30, 45절) 힘써 행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함에 있어서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A. W. 토저 목사님의 그의 책 《예배인가, 쇼인가!》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것이 있으나 예배가 없다. 기도회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단지 교회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교회의 예산을 얼마나 지출해야 할지 계산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사람들은 단지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그를 기도회에 참석하게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예배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고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모순이다”(Tozer). 우리 목회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성의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정결케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예배자의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된 예배자들로 세움을 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중에서 찾는 성의를 보이는 그리스도인들, 성의를 보이는 성도들입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을 보십시오: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밖에서 거두어 이 공간을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보였던 성의는 무엇이었습니까?

1. 유다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인하여 즐거워하였습니다. 44절을 보십시오: “...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오늘 말로 한다면 성도들이 목회자의 성의를 보면서 그가 얼마나 큰 수고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알고 있기에 그의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그를 기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과연 요즘 교인들이 자신들의 교회 목회자를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다시 질문한다면, 요즘 교인들이 목회자의 섬김에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란 공동체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매우 경계해야 할 것 중 하나는 바로 ‘원망’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원망하며 성도들은 목회자를 원망한다면 그 공동체는 말이 살아있는 공동체지 마치 죽어가는 세포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성도가 자기 교회 목사님을 향하여 원망을 품고 있다고 가장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도는

그 원망을 품고 있다가 또 다른 성도가 자기와 비슷하게 목사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결국 두 죽어가는 세포가 뭉치게 되어 서로가 영적으로 퇴보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는 목회자가 성도님들을 원망의 대상으로 삼지 말고 기쁨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목회자를 원망이 대상이 아닌 기쁨의 대상으로 삼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심각한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기보다 어찌면 목회자들 자기 스스로에게 있는 좌절감과 낙심 등이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 충격 보고서》(피터 칼도르, 로드 풀피트 저)란 책을 보면 목회자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좌절감과 낙망 속에서 탈진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실망한다고 합니다. 왜 실망 속에서 탈진합니까? 탈진 평균 수치 제일 높은 것 목록 한 몇 가지 만 나눈다면 일상생활에서 피로감과 상한 감정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을 성취하려고 시도하다가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교회 또는 성도에게 영적 변화나 성장 등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낍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슥3:17).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인도하며 정결한 삶을 사는 모범을 보면서 그들을 기뻐해야 합니다.

2. 유다 사람들은 성전 사역자들을 지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12장 44절을 보십시오: “그 날에 사람을 세워 공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공간을 쌓게 하였노니...” 모세의 율법의 기록된 대로 성전 사역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지지하고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십일조’를 성전에 받쳤습니다. 그러면 레위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백성들이 성전에 받친 것들을 잘 공간에 쌓아두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일조나 헌물을 성전에 받친 이유는 성전 사역자들을 도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려고 했던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Hudson Taylor 선교사님은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행해졌을 때 그 일에는 하나님의 지지가 결핍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 목회자들이 Taylor 선교사님의 이 말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지지는 결핍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성도님들은 그러한 종의 사역을 위하여 후원하는 일을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며 결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고후 9:7). 즐거운 마음으로 후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 집’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위에 복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겔44:30).

어느 교회에 사임하는 집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교회 봉사나 헌금 내는 일에 몹시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주일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기독교인과 돈’이었습니다. 그 집사는 대단히 흥미롭게 설교를 듣고 있었다. 목사님의 설교는 3대지로 되어 있었다. 1대지는 돈을 많이 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그 집사는 계속 ‘아멘!’이었다. 2대지는 저축을 많이 하라는 내용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아멘!’이었다. 집사의 얼굴은 밝았고 설교 말씀이 계속되는 동안 ‘아멘’ 소리가 계속해서 크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3대지에서 하나님께 많

이 바치라는 내용의 설교를 듣더니 그때부터 그 집사의 ‘아멘’ 소리는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오면서 그 집사는 친구 집사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멋지지 않았어? 1대지, 2대지 아주 은혜로웠단 말이야. 그런데 3대지에 가서 그만 은혜를 쏟고 말았어. 한 마디로 말해서, 3대지 때문에 설교 전체를 망쳐 버렸다고”(인터넷).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직장인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2장 9-10절).

예수님을 믿는 직장인으로서 회사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나요? 특히 직장의 상관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모두의 상전이신 하늘에 계신(엡6:9)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하게 다시 질문한다면,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의 상관과의 관계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주님의 영광을 더 이상 가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직장인들 받는 스트레스 중 상관과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도 한다고 합니다. 언젠가 어느 집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 책상 서랍에 사표를 써놓았다가 자기 상관의 얼굴에 던지고 직장을 때려치우고 싶다고요. 오죽 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 심정을 저에게 토했을까요. 또 어떤 자매는 자기 상관이 직장에서 여성 직원들을 성희롱하다시피 하는데 그 상관의 책상에는 성경책이 놓여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직장 상관이 오히려 안 믿는 상관보다 더 못됐고 더 나쁘고 직원들을 더 괴롭히는 등 전혀 본이 되지 않고 있으니 그러한 상관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9-10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흠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 한 다섯 가지로 “바른 교훈”(sound doctrine)(1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해야 합니다.

성경 디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 말씀을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직장인들에게 적용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사도 바울 당시처럼 노예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직장에서 상관과 직장인과의 관계가 상전과 종과의 관계도 아닌데 어떻게 이 교훈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나요? 무조건 모든 일에 상관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주 안에서’(엡6:1)만 상관의 말을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일 나의 상관이 주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말을 할 때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특히 나의 상관이 그리도 못됐고 나쁜데 그래도 범사에 그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인가요? 웬지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 직장 상관에게 결코 “범사에 순종”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우리 육의 눈으로 우리 직장 상관을 보고 있다 보면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는 순종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범사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딤후 2:9).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상관에게 범사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그 대답을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성경은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육체의 상관에게도 순종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께는 순종하길 원하지만 우리의 직장 상관에게는 순종하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는 자매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괴롭히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싶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5:22). 하나님께서 신적 권위를 주시사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신 나의 남편, 그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님께 하듯 해야 하는데 많은 아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남편들도 마찬가지 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25절) 우리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있지 않음]. 그녀들은 주님께는 복종하겠지만 자기 남편에게는 그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22절).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과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주님께서 순종하려고 노력하면서 남편이나 직장 상관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것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둘째로,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성경 디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아니 내 직장 상관이 나를 기쁘게 해줘야 내가 그를 기쁘게 하죠? 아닌가요? 우리의 옛 본능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부부 관계이던 상관의 관계이던 우리의 옛 습관은 항상 조건적이고 항상 이기적이기에 내 남편/아내가 또는 내 상관이 나를 먼저 기쁘게 해줘야 내가 그를 기쁘게 해줄 것이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은 옛 본능을 극복하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직장인들은 그들의 상관을 기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상관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아침이나 하고 아부나 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함이며 아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시12:2),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사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침하느니라”(유1:16). 이 두 구절만 봐도 성경은 아침하는 입술은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 때에도 아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살전 2:5). 우리도 탐심의 탈을 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우리 직장 상관에게 아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두 마음을 품고 우리 상관에게 아침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순간에 우리 상관을 기쁘게 하는 듯 해 보일지라도 결코 우리의 상전이신 하늘에 계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 우리 상관에게 순종하므로 우리 상관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순종하되 우리는 “눈가림만 하여” 우리 상관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엡6:6). 우리는 우리 상관이 우리를 보고 있던 안 보고 있던지

간에 하늘에 상전이신 주님께서 보고 있으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주님께 하듯 우리 상관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우리 상관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상관을 기쁘게 하기 위해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 상관을 섬기되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합니다(7절). 우리가 그리해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8절).

셋째로, 종들은 상전들에게 거슬러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디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 거슬러 말하지 말며.” 어르신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른들에게 말대꾸하는 것을 보시면서 버릇이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전라도 사투리를 쓰시는 어르신들은 그런 젊은이들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에게 버릇없이 말대꾸 하는 것일까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주님 안에서 순종하지 않고(엡6:1) 오히려 말대꾸 하는 것일까요? 어르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아서 아닌가요? (2절) 왜 아내가 남편에게 말대꾸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서 아닌가요? (5:33)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9절을 보면 성경은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 거슬러 말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영어 성경(NIV)에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 말대꾸하지 말며’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 ‘거슬러 말하다’ 혹은 ‘말대꾸하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ἀντιλεγω”로서 “anti”(안티, 반대하는)라는 말과 “lego”(말하다)라는 합성어입니다. 즉, 종들은 상전들에게 반대하는 말을 하지 말라(speak against) 또는 반박하지 말라(contradict)는 뜻입니다. 왜 종들이 상전들에게 반박하는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는 에베소서 6장 5절 상반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종들이 두려워하고 떨며 ...”(Slaves, ... with respect and fear) 즉, 종들이 상전들에게 반박하는 이유는 그들이 상전들을 존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크리스천 직장인들이 상관들에게 반박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상관들을 존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변명 또는 합리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 상관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못돼. 그는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아. 존경 받을 만해야지 내가 존경하지.’ 우리는 이러한 변명(합리화)을 우리 상관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부부 관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명히 성경 에베소서 5장 33절 하반절은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고 명하고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경하지 않는 이유를 남편이 존경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 남편이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는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정으로 그녀가 주님을 존경한다면 그녀는 주님께 하듯 자신의 남편을 무조건적으로 존경하며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이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면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하겠다고 하는 자매는 “주께 하듯 하라”(22절)는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께 복종한다고 말하면서 내 남편을 존경하지 않고 불복종하는 것입니까? 균형 잃은 신앙생활입니다. 수직적은 주님과와의 관계와 수평적인 남편과의 관계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 관계를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직장에서도 상관들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균형 잃은 원리로 상관들을 존경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반박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우리 상관들에게 반박하고 있다면 그 진정한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모두의 상전이신 주님을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종들은 상전들에게 훔치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디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떼어 먹지 말고 ….”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때 햄버거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햄버거를 훔쳐 먹은 기억이 납니다. 손님들을 햄버거를 만들면서 내 자신 것도 만들어서 몰래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갑자기 “뽕땅”이란 말이 생각납니다. 그 단어의 의미가 네이버 사전에는 이렇게 적혀있네요: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야 할 돈의 일부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일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내 상관에게 넘겨주어야 할 돈의 일부를 중간에서 몰래 가로채는 일은 도둑질입니다. 내 돈도 아닌데 내 상관의 돈을 몰래 꿀꺽 삼키는 행동은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입니다. 이러한 도둑질을 우리가 몰래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잠언 9장 1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몰래 남의 돈을 먹는 것이 맛이기 때문입니다. 그 맛을 들이게 되면 그 도적질 습관은 끊기가 힘듭니다. 특히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옛 속담처럼 처음에는 회사 돈을 조금만 몰래 도둑질 하다가 끊지 못하면 그 액수는 점점 커질 것입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까지도 도적질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십일조와 헌물”을 도적질 할 것입니다(말3:8). 물론 처음에는 십일조와 헌금을 꾸준히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던 일에서 수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십일조의 액수도 커질 것이기에 점점 더 십일조의 액수가 이십일조, 삼십일조가 되어가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십일조도 받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라고 말할 것입니다(말 3:8). 결국 직장에서 회사 돈이던 상관 돈을 훔치다가 하나님의 것도 훔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도적질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말입니다(출20:15, 레19:11, 신5:19).

다섯째로, 종들은 상전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디도서 2장 10절을 보십시오: “...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직장 상관의 입장에서는 믿고 맡길만한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그러한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회사에서 상관의 눈치만 보면서 그만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그가 볼 때에는 열심히 일을 하겠지만 그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는 일 squirming을 하지 않으려고 꾀를 부리며 게으름을 피울 것입니다(엡 6:6).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여 우리 직장 상관에게 신뢰를 얻고자 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우리가 어느 기간까지는 상관의 눈을 속여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때가 되면 우리는 우리 상관에게 농땡이 부리다가 결려서 신뢰를 잃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상관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려면 우리는 “성실한 마음으로” 우리 상전에게 순종해야 합니다(5절). 순종하되 우리는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합니다(5절). 그리고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6절).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상관을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해야 합니다(7절). 섬기되 우리는 충성하여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야 합니다(딤후2:10).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상관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그들을 기쁘게 하며, 그들에게 거슬러 말하지 말며, 그들에게서 훔치지 말며 또한 그들에게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오늘 본문 디도서 2장 10절 하반

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 …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so that in every way they will make the teaching about God our Savior attractive). 무슨 뜻입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바른 교훈(sound doctrine)을 매력 있게 (attractive)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매력있는 직장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매력있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아 순종합니다. 그리하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직장 동료들을 위로(encourage)할 것입니다(딤후 1:9). 그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refute)할 것입니다(9절). 그리고 그들은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할 것입니다(2:8). 매력있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하나님의 바른 교훈을 받아 순종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이 받지 않게” 할 것입니다(2:5). 그러한 매력있는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위로하는 성도님들, 근심케 하는 목사님

“그러나 비천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디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앞이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6-10).

우리 주위엔 위로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궁핍과 고난, 외로움과 괴로움, 질병과 고통, 상처와 아픔, 심지어 생사의 갈림길에서 허덕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 분들 모두 다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웬지 그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우리 “목사님”은 잘 포함시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시니까 뭐 믿음으로 다 잘 이겨 나아가실꺼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조차도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종이였다는 사실입니다(고후7:6).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6-7절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위로를 받았는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디도의 옴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위로의 하나님께서는(고후7:6) 바울의 동무요 동역자(8:23)인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후 바울에게 오게 하므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7:6). 이와 같이, 우리 목사님은 디도와 같은 우리의 동무요 동역자를 통하여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동역자가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기 때문에 위로가 된다고 보다 그저 우리를 찾아뵙는 것이나 우리와 함께 하므로 우리 목사님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앞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우리 목사님은 사랑하는 디도와 같은 동역자가 섬기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받았다는 소식을 접할 때 위로를 받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 손주들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위로받은 아들과 위로한 손주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위로를 할 때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셋째로, 바울은 디도가 전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기뻐함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7절을 보십시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디도가 바울에게 전한 소식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서 그 훈계를 존중시하며 경모한다는 것[“너희의 사모함”(7절)]과 그들이 그 경모하는 사도의 훈계에서 자기들의 죄과를 깨닫고 통회하는 것[“애통함”(7절)] 그리고 그들이 열심을 분발하여 사도를 성심껏 봉사하려 하는 것[“열심”(7절)]이었습니다(박운선). 그러므로 바울은 디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교회 성도님들로 인하여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바울이 디도를 통해 전해들은 기쁜 소식으로 위로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목사님도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기쁜 소식을 전해 들으므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목사님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 기쁜 소식이란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훈계를 존중하며 사모한다는 소식이요 그 훈계를 통하여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애통한다는 소식이요 또한 성도님들이 열심을 내어 목사님을 성심껏 봉사하려 한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이렇게 여러분의 목사님을 위로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위엔 근심케 할 필요가 있는 성도님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옛 사람의 습관대로 행하므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그분들은 모두 다 근심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웬지 그 성도님들을 근심케 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어찌면 목사님들이 그 성도들을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면 목사님들은 그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어 교회에 나오지 않을까바 염려해서 책망을 못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케 하였다는 사실입니다(8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7장 8-10절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근심케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들을 근심케 하였습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점들을 책망하는 서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므로 바울은 그들을 근심케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후회하였습니다(8절). 마치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망한 후 후회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더 이상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는 자기가 써서 보낸 서신이 그들을 잠시만 근심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8절). 오히려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9절).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9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것입니다(9,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세상 근심과 달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10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서신으로 하여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케 하시되 그들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였으며, 변명하게 하였으며, 분하게 하였으며, 두렵게 하였으며, 사모하게 하였으며, 열심 있게 하였으며 또한 벌하게 하였으므로 결국에 가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내게 하신 것입니다(11절).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닙니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되(“간절하게 하며”)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용서를 빌고(“변명하게 하며”), 자기 자신을 고통의 원인자로 여겨 자신에게 대하여 분히 여기며(“분하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두렵게 하며”), 바울 오기를 사모하며(“사모하게 하며”), 잘못된 것을 고치기 원하는 열심을 내며(“열심 있게 하며”), 또한 범죄한 자기 자신들을 벌하고자 원하는 심정으로(“벌하게”) 자기 자신들의 깨끗함을 나타내었으니 이 얼마나 유익한 근심케 함입니까. 이러한 근심함은 손해 보는 것이 아니요(9절) 오히려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므로 우리 목사님은 그들을 근심케 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 교회 성도님들을 회개케 하는 근심함은 우리 목사님이 후회할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간절히 하나님께 그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므로 말미암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성도님들을 근심케 하고 계십니까?

외식하는 우리 목사님, 어떻게 반응해야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마태복음 23장 3절).

직장에 가서 우리의 상관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외식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에 가서 우리의 목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성경도 잘 가르치시는데 위선적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집에 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교회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처럼 보이므로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으시는데 집에 와서는 180도 다른 면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어쩌면 우리는 그 외식하는 상관을 꼴 보기 싫어할 수도 있고, 위선적인 우리 목사님의 설교와 가르침이 더 이상 귀에 들리지 않아 교회를 옮겨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수도 있으며, 집에서 말로만 신앙생활을 바로 하라고 하시면서 자신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를 매일 볼 때에 아버지께 대한 존경심을 잃고 실망 가운데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외식하는 자'(예: 마 23:15)란 단어의 의미는 “배우”(an actor) 또는 “위선자”(a hypocrite)란 뜻으로서 가시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또는 위조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WCNTDICT).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 3절의 문맥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외식하는 자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2절). 문제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면서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그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바리새인의 유전까지 첨부하여[“무거운 짐”(4절), 박윤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들은 행치 아니하였습니다[참고: 막7:1-13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렸음)]. 그들이 이렇게 외식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물론 그 원인은 그들의 교만이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롬2:21).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의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을 때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경공부를 준비하고 그렸을 때 우리 자신에게 그 묵상하는 말씀을 비춰보면서 부지런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다른 형제, 자매들을 가르치므로 그들에게 ‘참 잘 가르칩니다’라는 식의 칭찬까지 받을 때에 스스로 좋은 선생인 줄 착각하므로(좋은 선생님은 주님 밖에 없건만) 더욱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그 지체들을 열심히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데에는 게을리 하게 되므로 마음이 교만해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잘 가르치면서 자기 자신을 부지런히 잘 가르치지 않는 신앙 패턴이 오래되면 될 수록 가르침과 실행의 간격(gap)은 더욱더 벌어져서 결국에는 ‘성경 배우’가(연극배우나 영화배우처럼) 되고 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니 나중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신앙생활을 흉내 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둘째로, 외식하는 자는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5절을 보십시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여 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되 특히 그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자(impressed)(BAGD) 옷에 달고 다니는 경문을 넓게 하였고 또한 입은 옷을 길게 하여 점잖은 표시를 가지려 하였습니다(5절, 박운선). 이렇게 표시 나게 경문을 넓게 하고 옷을 입고 다녔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 받기를 좋아하되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에 앉았고(6절) 또한 대중 앞에서 높임을 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7-10절). 그들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7절). 참 심각한 교회 문제라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저 같이 젊은 목사님들이 삼촌뻘 되시는 장로님들에게 까지도 대접 받는 것을 원하고 기대하며 아예 그것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참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으시고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성경 말씀(마20:28)을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려하지 않고 도리어 섬김을 받는 것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더 이상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부끄럽고 부끄러울 뿐입니다.

이렇게 외식하는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과연 이렇게 위선적인 아버지를 보면서 자녀된 자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나요? 과연 이렇게 겉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다른(마23:25-28) 그리스도인 직장 상관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 세 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1. 우리는 외식하는 우리 목사님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우리의 본능은 우리 목사님이 위선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참고 참다가 더 이상 그분의 외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없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의 설교나 가르침을 듣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모든 사람의 본능이 다 같지 않을 수도 있기에). 아무리 그분의 설교나 가르침이 훌륭할지라도 (아니면 적어도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 맞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존경할 수 없기에 우리 마음이 닫혀져서 그분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모습은 본받지 말아야 하지만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3절). 즉, 우리는 외식하는 목사님의 가르침이 성경적일 때 그 모든 성경적인 가르침은 듣고 지켜 행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교훈을 듣고 순종할 것입니다.

2. 우리는 외식하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가르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2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 하느냐.” 우리의 본능은 외식하는 우리 목사님을 볼 때에 실망과 심지어 분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정죄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그 분을 정죄하는 마음까지 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유혹에 빠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핵심에는 교만한 마음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누구이관데 목사님을 정죄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 정도로 잘난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우리 목사님보다 더 경건합니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 분보다 더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에게도 그분처럼 경건의 능력보다 오히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아닐까요? 왜 우리는 그 분을 우리의 영적 거울로 삼고 배우는 기회로 삼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배우고 또 배워야 합니다. 심지어 외식하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배워야 합니다. 배우되 우리는 특히 그 분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그 분처럼 겉모습과 내면 모습이 다른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도 그 분처럼 말만하고 행함이 없는 것은 아닌지, 혹시 우리도 우리 목사님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3. 우리는 외식하는 우리 목사님(아버님)과 달리 자기 자신을 낮추어 다른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23장 11-12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의 본능은 외식하는 목사님처럼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높으신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마땅한데 우리의 죄악된 본능은 그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우리가 홀로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박사님”, “선생님”, “회장님”(사장님) 등등 칭찬 받기를 좋아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명예욕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신 것만 해도 큰 은혜요 큰 영광인데, 우리가 “성도”라 부름을 받는게 큰 영광 아닌가요? 오히려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란 호칭이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직분은 맡겨주셨는데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선적인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수치심 속에서 그러한 칭찬을 받는게 하나님과 성도님들에게 죄송스럽지 않으십니까? 휴~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빌2:5) 교회 형제, 자매들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6절) 오히려 내 자신을 비어(7절) 주님의 종으로서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겨(3절) 그들을 섬겨야 하는데 왜 나는 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그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은 주님 앞에서 설 때에 주님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25:21)라는 칭찬 받고 싶은 마음으로 겸손히, 묵묵히 지체들을 섬기고 또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겸손히, 신실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시편 69편 30-31절).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인간관계에서 상처와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인간관계에서 많은 근심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는데 왜 그/녀가 나를 미워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관계라 생각합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되 그 상대방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중심으로 그룹이 형성되어 나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때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근심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때에 우리는 위로 받기를 원하지만 아무도 우리를 위로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멀리할 때에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가족 식구들까지도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멀리할 때 우리는 더욱 낙망할 뿐만 아니라 식구들에게까지도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은 마치 우리가 깊은 수렁에 빠진 듯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절망에 빠지게도 합니다. 이러한 깊은 절망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려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송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69편의 저자인 다윗이 당하고 있었던 고난은 마치 “깊은 수렁이”와 “깊은 물”과 같은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2절). 왜 다윗은 이렇게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를 까닭 없이 미워하는 자들이 그의 머리털보다 많았기 때문입니다(4절). 또한 그의 강한 원수들이 다윗의 생명을 끊으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4절). 이러한 극심한 곤고한 처지에 빠져있을 때에 그를 더 괴롭게 하였던 것은 그의 형제들조차 다윗을 외면하였기 때문입니다(8절). 다윗은 외로웠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긍휼히 여길 자와 위로할 자를 찾았지만 찾지 못하였습니다(20절). 그러한 고난 중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송을 하였습니다(30절). 그리고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31절). 어떻게 다윗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송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한 4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9편 13-14, 16-1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받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이유 없이 우리

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막강한 세력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있으면 우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고통 중에서 충분히 허덕일 수 있습니다. 그 때에 우리의 본능은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으려고 갈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를 사랑해주는 우리 가족 식구 형제들이나 또한 사랑하는 친한 친구들을 찾아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고 찾아갔던 그들조차도 낯선 사람들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외로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과 많은 근심을 동정해주고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음을 알게 될 때(20절) 우리는 극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때에서야 우리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님을 좀 뼈저리게 깨닫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몸부림치며 부르짖습니다. 그 때에 우리가 좀 확실하게 깨달아야 할 진리는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반기신다’는 사실입니다(13절).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주님만이 나를 항상 반겨주신다는 사실을 좀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고난(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먼저 나아가 무릎을 꿇고 간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구하되 우리는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과 많은 고통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대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1절). 분명히 구원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건져주실 것입니다(14절).

둘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달아 자복해야 합니다.

성경 시편 69편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므로 내 죄를 주께 숨길 수 없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의 생명을 노리는 막강한 세력의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가 보았자 우리는 충분히 위로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 불평과 원망 등을 쏟아낼 확률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의 불만과 불평 등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의 손가락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향하기보다 우리 자신에게 향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기도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어두운 죄가 들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하였던 것이 “나의 우매함”임을 깨닫게 됩니다(5절). 결코 지혜로운 자는 그리하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를 자복하지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의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반겨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숨겨진 죄까지도 들춰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말미암아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축복이 그림자 없으십니까?

셋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선 우리

는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열심히 우리 속에 불타올라야 합니다.

성경 시편 69편 9절을 보십시오: “주의 성전을 위하여 열심히 내 속에 불타오르므로 주께 던지는 모욕이 나에게 돌아옵니다.”(현대인의 성경).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고난 중에 있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우리 속에 불타올라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 외에 심지어 식구들까지도 생각할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그 와중에서도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생각하며 더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열심이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므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열심을 내게 됩니다(고후11:2). 다윗의 경우를 보면 그는 그의 원수들과 미워하는 자들에게 비방과 조롱을 받되 주님을 위하여 받았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시 69:7, 10, 12). 그래서 수치가 자기 얼굴에 덮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7절). 그 뿐만 아니라 다윗의 원수들과 그를 미워하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뿐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 주님을 찾는 자들을 욕하고 수치를 주었습니다(6절). 그들은 다윗이 믿고 섬기는 주님을 비방한 것입니다(9절). 그 때에 다윗의 마음은 주님의 성전을 위하여 열심히 불타올랐습니다(9절). 우리의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욕하고 조롱하며 주님의 교회를 욕하고 비방할 때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받으므로 환난을 당할 때 교회를 향한 우리의 열심히 우리 속에 더욱더 불타올라야 합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의 신앙만 지킬 뿐 아니라 그 신앙 따라서 주님과 주님의 몸 된 교회에 더욱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새찬송가 383장).

마지막 넷째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선 우리는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성경 시편 69편 30절을 보십시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 중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다윗은 극심한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하므로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성경 시편 63편 3절 말씀이 생 각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옴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다윗은 그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도망 다닐 때 유다 광야에서 주님의 신실한 사랑을 경험하므로 그 고난 중에서도 유다 광야를 성소로 삼고(2절)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3절). 어떻게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반기시며 많은 사랑과 구원의 진리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69:13)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경험하므로 하나

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36절) 감사하므로 하나님을 구원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가 실라가 감옥에서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행16:25). 저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시63:3)을 조금이나마 깊게 경험하므로 하나님을 찬양한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신 첫째 아기 주영이가 제 품에서 잠든 후 화장을 하여 그녀의 뺨가루를 물에 뿌리면서 푸른 창공을 바라보면서 “My Savior’s Love”란 노래(또는 “I Stand Amazed”)를 하나님께 찬양 드리게 하셨습니다(<http://youtu.be/nkFOtaO8B9c>):

- (1절) I stand amazed in the presence Of Jesus the Nazarene, And wonder how He could love me, A sinner, condemned, unclean.
(예수의 임재앞에 놀라움으로 서있네 이 부정한 죄인을 어찌 사랑 하시는지!)
- (2절) For me it was in the garden He prayed: “Not My will, but Thine.”
He had no tears for His own griefs, But sweat drops of blood for mine.
(내 뜻이 아닌 주의 뜻대로 갓세마네 기도했네 자신을 위한 선택 없이 날 위해 그 피 흘렸네)
- (3절) In pity angels beheld Him, And came from the world of light To comfort Him in the sorrows He bore for my soul that night.
(천사들 연민 하던 때에, 세상의 빛으로 우리 슬픔 말기 위해 그 밤에 날 감당했네)
- (4절) He took my sins and my sorrows, He made them His very own; He bore the burden to Calvary, And suffered and died alone.
(나의 슬픔 나의 죄를 자기에게 감당했네 갈보리 고난당하고 홀로 십자가 지셨네)
- (5절) When with the ransomed in glory His face I at last shall see, ‘Twill be my joy through the ages To sing of His love for me.
(영화되어 승리하고, 그를 보게 될 그 날까지 기쁘게 부를 찬양제목 날 향한 주의 사랑)
- (후렴) O how marvelous! O how wonderful! And my song shall ever be:
O how marvelous! O how wonderful! Is my Savior's love for me!
(오 놀라워, 오 놀라워 내 노래 멈출 수 없네 오 놀라워, 오 놀라워 날 향한 내 주의 사랑)

환난을 통하여 주님의 축복을 누리신 그리스도인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 이니이다 …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사오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이사야 26장 3, 16절).

우리 인생의 여정에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혹시 나는 하나님께 회개치 않은 죄가 있지는 않은가? (2) (만일 하나님께 회개치 않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난을 만났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환난을 주신 것일까? (3) 나는 하나님께서 이 환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은 믿고 있는가? 혹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 이사야 26장 1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징벌”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 환난이란 바벨론의 침략이요 그 침략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가리킵니다. 왜 이러한 환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치 않은 죄로 인하여 환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란 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곳에서 주님을 앙모한 것입니다(16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중에 주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성경 이사야 26장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의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 곧 주의 기념 이름을 우리 영혼이 사모 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 유다 예루살렘에서 범죄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방 나라 바벨론에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요 축복입니까? 비록 환경은 어렵게 되어 포로 생활 가운데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환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주님을 간절히 찾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3절). 다시 말하면, 그들은 주님만 의뢰하였습니다(13절). 교만하여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던 자들이 환난과 고통을 통하여 겸손해져서 주님만을 의뢰하게 된 것이 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지는 견고해졌습니다(3절). 즉, 그들의 마음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로 변화를 받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평강(perfect peace)을 주셨습니다(3절). 영원한 반석이 되시는 주님께서(4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에 그들은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의 축복은 정직한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의인들의 첩경을 평탄케 하였습니다(7절). 비록 범죄로 인하여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환난과 고통의 길, 그 길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닐지라도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죄를 회개케 하시사 마음의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마음의 시온의 대로로 만드셨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 또한 평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들의 모든 일들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사 그들에게 평강을 베푸셨습니다(12절).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나라를 더 크게 하시사 스스로 영광을 얻으셨습니다(15절). 즉,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참된 부흥을 일으키신 것입니다(박윤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는 평안할 때나 환난 때나 변함없이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범죄로 인하여 받는 주님의 징벌인 환난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회개의 축복뿐만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찾는 참된 우리 영혼의 회복의 축복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환난을 통하여서라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강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어 나아가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참된 부흥의 축복을 충만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헌신해야 할 3가지 일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역대상 5장 20절).

첫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헌신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대상 5장 18절을 보십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사만 사천칠백 육십 명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민32:1-5). 그리고 자기들에게 요단강은 건너지 않게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5절). 그 이유는 그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였고 그들에게는 가축이 심히 많았기 때문입니다(1, 4절). 그 때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 이스라엘을 낙심하게 하여서 …”(6-7절). 그 말을 들은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모세에게 먼저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한 후에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자기들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16-18절). 그리고 그들은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습니다(수22:3). 그 책임을 지킨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가리켜 “용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대상 5:18). 용사이되 그들은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습니다(18절).

우리도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군사)들로서 영적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이 말씀을 잘 다루는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과 죄악과 세상과 사단과 영적 싸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들이 되는데 헌신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헌신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성경 역대상 5장 20절을 보십시오: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는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웠습니다(19절). 그러던 중에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부르짖었습니다(20절).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사 그들을 도와주셨습니다(20절). 그 결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21-22절).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에만 익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도 익숙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익숙해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시22:4).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77:1)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출22:23).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시3:4, 86:7, 120:1).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고전15:57).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헌신해야 할 일은 은혜 받은 후에 우리 마음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성경 역대상 5장 2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는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워 승리한 후 그들의 땅에서 살았습니다(22절).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은 바산에서부터 바알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에 이르러 땅 전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성하였습니다(23절). “그리고 그들 씨족의 족장들은 에벨, 이시, 엘리엘, 이스라엘, 예레미야, 호다위야, 야디엘이었으며 이들은 모든 용사의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떨쳤”습니다(24절).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번성하여 명성을 떨친 후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25절). 그들은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멸망시킨 여러 민족의 신들을 섬기고 범죄하였습니다(25절).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앗수르 왕의 마음을 일으키시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을 침략하도록 하셨습니다(26절).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앗수르에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26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은 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번성케 되고 풍족케 된 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께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에 족하리라 사는 자가 물건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된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의 보증이 된 자는 그 몸을 불모잡힐지니라 속이고 취한 식물은 맛이 좋은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니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잠언 20장 13-18절).

몇 달 전 1구역 성경공부 때 디도서 2장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때 집사님 한 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한 것 같다’는 식으로 나누셨는데 나중에 성경공부를 마치고 식사를 한 후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말의 뜻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더 그 말의 뜻을 이해할 때 저는 그 말의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나쁘게 행하는지 할 말을 잃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 원인이 뭘까 생각해 볼 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디도서 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sound doctrine)을 잘 배우지 못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지금 “바른 말”(sound in speech)을 하지 못하고 있고(8절) 더 나아가서 바른 삶(sound in life)을 살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0장 13-18절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이란 제목 아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 4가지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는 이 교훈들을 받아 힘써 지켜 행하므로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바른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3절을 보십시오: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네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네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잠언을 묵상하다 보면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해서 여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 중 하나는 바로 잠언 6장 9-11절입니다.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 같이 오며 네 곤핍이 군사 같이 이르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 잠언 20장 13절과 연관해서 묵상할 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게으른 자는 잠자기를 좋아하고 잠자기를 좋아하면 가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오늘 본문에서 “네 눈을 뜨라”, 곧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20:13). 다시 말하면, 일을 해야 할 때 졸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6장 6-11절에서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는 개미처럼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일을 해야 할 때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깨어서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양식이 족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0:13).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면 우리가 깨어 정신을 차리고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단어와 많이 연관된 주제는 바로 기도입니다. 즉,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우리가 깨어 있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6장 41절을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는 단어와 또 다른 연관된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어느 날에 주님이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되 성경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모든 일을 피하고 주님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방식이란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깨어서 부지런히 일하라’는 것입니다. 새찬송가 330장 “어둔밤 쉬되리니”라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 (1절)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 (2절)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 (3절) 어둔 밤 쉬 되리니 네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긴 별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되 우리가 일할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할 때에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바른 생활 방식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8장 14절을 보십시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백화점이던 시장이던 물건을 사러가

서 물건을 파는 사람(seller)하고 어떻게 흥정(bargain)하십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은 2003년 12월에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장인 어르신과 함께 차를 사러 Buena Park 지역에 있는 차 딜러 몇 군데를 다닌 적이 있는데 저는 그 때 ‘아 차는 이렇게 사야 하는 것이구나’란 생각이든 기억이 납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때 장인 어르신이 세일즈맨에게 가격을 물으신 후 비싸다는 인상을 받으신 것처럼 하시더니 ‘다른데 가보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세일즈맨이 차 가격을 좀 내려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식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때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Honda 차를 산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도 몇 주 전 세차 하러 갔다가 거기 일하는 사람이 제 차는 SUV라서 \$15를 내야 한다고 하기에 제가 그 사람에게 나는 여기 지난번에 왔을 때에 \$12.99 받았다고 확신 있게 말하니 \$13로 종이에 적더군요. 그래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한국 아주머니에게 그 종이를 주고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12.99를 내라고 하여 계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4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물건을 사는 자(buyer)자가 물건을 파는 자(seller)와 협상(bargain)을 하는데 그 물건을 가격을 의도적으로 깎으려고 그 물건에 대하여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는 자는 가격을 내려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물건을 산 후 자기의 영리함(cleverness)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MacArthur).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요즘처럼 인터넷으로 여러 다양한 종류들의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물건을 사는 자로서 우리의 입장에선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이 좋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해야 하지만 물건을 파는 사람들 입장에선 수입을 많이 원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물건을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서로 흥정을 해야 하는데 이미 정해진 가격에서는 사는 자가 파는 자나 어떻게 해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로 인터넷으로 사는 물건들은 그런 것 같음(경매하는 사이트 외에는). 그러나 그 외에 물건의 가격을 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물건을 사는 자나 파는 자가 협상을 해야 하는데 싸게 사고 싶어 하는 사람과 수입을 올려야 하는 파는 사람과의 협상에서는 서로 주고받는 말들이 순수하고 정직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물건을 파는 세일즈맨 입장에서는 정직하게 말을 했다가는 수입이 적을 수밖에 없기에 과장된 말도 해야 하고 어찌면 거짓말까지 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 세일즈맨들은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물건을 사는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10절). 우리 하나님은 “한결같지 않은 저 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7절을 보십시오: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는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 맛이 좋은 듯하지만 나중에 결과는 마치 입에 모래를 먹는 것처럼 매우 불쾌하고 불편하다는 말입니다(Walvoord). 달리 말한다면, 처음에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나중에 자신에게 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 잠언 9장 17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남을 속이고 취한 음식물이나 도둑질한 물이나 몰래 먹는 떡, 이 모든 것들은 처음에는 맛이 좋지만 나중에는 그 부정직한 행함에 결과(consequence)는 결코 맛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중에 우리의 잘못된(죄악된) 선택의 결과를 어느 정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바른 말을 하고 진실을 말하되 우리의 입술은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5절을 보십시오: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우리의 입술이 지혜로운 입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은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지식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지식을 말해야 하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야 합니다. 말하되 우리는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하며 또한 적합한 때에 적합한 말을 해야 합니다(Walvoord).

셋째로, 우리는 바른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6절을 보십시오: “타인을 위하여 보증 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 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보증을 서 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특히 만일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중하게 거절하시겠습니까? 성경 잠언 6장 1-5절에서 이웃을 위하여 보증이나 담보를 서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훈의 요점은 만일 우리가 우리 이웃을 위하여 담보 또는 보증하였다가(1절) 우리가 그 이웃의 손에 빠졌을 때(2-3절), 즉 우리가 그 이웃의 채무 이행 책임을 떠맡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5절). 여기서 잠언 기사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 어리석은 행동이란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빚을 진 상태를 알면서도 채무 불이행(defaults)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 자신 스스로 그 빚을 갚는 책임을 약속하는 것, 즉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증을 서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성경이 경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이웃이 경제적으로 곤란할 때 그 이웃을 위하여 보증인이 되어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이웃 사랑의 실천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솔로몬 왕이 경고하고 있는 어리석은 행동은 만일 보증을 선 것이 사고가 생길 때에 실제로 책임질 것을 각오하지 못한 보증인이나 혹은 남에게 속아서 보증인이 된 사람 또는 책임을 이행할 경제적 실력이 없는 보증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6절에서 또 다시 잠언 기사 솔로몬 왕은 사람들의 보증 행위에 있을 수 있는 실수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란 잘 알지도 못하는 타인(외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므로 그 외인에게 아무 것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왜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를 가리켜 박윤선 박사님은 “경제적 모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박윤선). 이 얼마나 큰 경제적 모험입니까? 경제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하여 돈을 빌려 주는 행위이던 보증을 서는 것이든 이러한 행위는 돈을 빌려줬던지 보증을 서 준 사람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사채업자들처럼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므로 모든 방도를 사용하여 그 사람으로 하여금 돈을 갚게 하되 이자도 엄청 많이 붙여서 돈을 받아낼 때에는 그것은 손해를 보는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것이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잠언에는 여러 번이나 모험적 보증 행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6:1-5, 11:15, 17:18,

22:26-27). 박운선 박사님의 말입니다: “사람들이(특히 신자들이) 경제적 모험을 하면 실패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지나친 경제 모험이 일종의 불신앙이기 때문이다. 그런 모험은 내일 일을 인간의 힘으로 주장할 듯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무시함이다(약 4:13-17)”(박운선). 여러분, “지나친 경제 모험이 일종의 불신앙”이란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지혜의 책 잠언을 묵상해 오면서 제 삶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좀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서론에서 잠시 나눴지만 교회 1구역 성경공부 후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런 저런 대화도 나눴습니다. 저는 그 집사님에게 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점 몇 가지를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당신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가족 식구처럼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으면 우리 마음에 큰 상처와 상실 속에서 ‘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나눈 것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이웃에게 내 마음의 모든 진실을 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투명하게 제 삶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데 언젠가 성경 사사기 16장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를 읽다가 들릴라라는 여인이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라고 날마다 삼손을 재촉하여 조르니까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이르러(15-16절) 결국에는 “삼손이 진심을 드러”냈다(So he told her everything)는 말씀(17절)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받은 교훈을 그 집사님과 나누면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진심을 다 털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제 생각을 나눴습니다.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절제할 필요가 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 절제 가운데에서는 “아니오”해야 할 때 정중히 그러나 단호하게 “아니오” 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아니오”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보증을 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빛을 값을 경제적 능력이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설 각오를 하고 보증을 선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빛을 값을 경제적 능력도 없으면서 사랑한답시고 여기저기서 빛을 저서 돈을 빌려주고 보증을 서 준다는 것은 결코 이웃을 지혜롭게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경제적 모험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박운선 박사님의 말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교훈은 우리가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보증을 서기보다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참고: 신 15:1-15; 19:17) 또는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것(참고: 레25:35-38; 28:8)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바른 사랑이란 주님 안에서 사랑이요 진리 안에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사랑은 결코 바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 잠언 20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타인(외인)을 위하여 보증을 서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보증서는 것에 실수를 한다면 그 결과를 우리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보증서는 것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여 실수를 범하지 말

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바른 경영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8절을 보십시오: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미국 시장에서 크게 성공을 한 월마트(Wall Mart)가 미국 시장에서의 성공을 배경으로 세계 곳곳에 진출했는데(한국에는 1998년) 왜 한국 시장에서는 큰 참패를 당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낮은 가격만을 앞세우다 보니 한국 소비자들의 성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소비자들은 대형 할인점의 대표적인 형태인 창고형 매장 형태를 굉장히 싫어하고, 대형 할인점이라도 백화점과 같은 형태로 제품이 진열되어 있기를 원하는데 월마트는 이런 고객들의 성향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그 결과 월마트는 이마트와 같은 한국인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패배하였고 급기야 이마트에 한국에서의 사업을 전부 매각하고 철수하였다고 합니다(인터넷). 이 결과와 오늘 본문 잠언 20장 18절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에 경영함에 있어서는 “의논함”(advice)과 “지략”(guidance)이 있어야 합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출애굽기 18장 17절 부터 나오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사위인 모세에게 준 자문(충고, advice)입니다. 그 자문한 말씀의 배경은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었습니다(13절). 그것을 보고 장인 이드로는 그들 모두가 필경 기력이 세하고 또한 모세가 홀로 이 중한 짐을 혼자 할 수 없는 알고(18절) 모세에게 이렇게 충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이 살피서 백성 위에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및 십부장을 세워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케 한 것입니다(21-22절). 모세는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의 백성의 우두머리인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어려운 일은 모세 자신에게 가져오게 하였습니다(24-26절). 이렇게 경영함에 있어서는 의논함(자문이나 혹은 충고)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 본문 잠언 20장 18절 외에도 잠언 15장 22절에서도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말하였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성경 잠언 11장 14절에서는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but many advisers make victory sure)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지략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경제학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성경은 어떠한 경제학 교과서보다 경제에 대해서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경제와 경영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구절이 무려 1만 5천 6백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경은 탁월한 경제학 교과서요, 경영 교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인터넷). “성경적 경제와 경영의 모델로 토라 경제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경제의 특징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입니다. 성경은 소유와 경영을 처음부터 분리합니다. 그렇다면 소유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경영자는 누구입니까? 경영을 위임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물질을 위임받아 경영을 하는 것입니다”(인터넷).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측면 중에 하나인 ‘성경적인 재물관’입니다(‘성경적인 생활관’, ‘성경적인 직업관’). 즉, 성경적인 재물관이란 물질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경제가 일반 경제와 다른 점은 일반 경제가 ‘버는 것’을 주로

공부하는데 반하여 성경은 ‘바르게 쓰는 것’을 먼저 가르친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성경 잠언 16장 1절과 3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경영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 이사야 14장 24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는 바른 생활 방식, 바른 말, 바른 사랑 그리고 바른 경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간관계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잠언 20장 19-22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인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사람 사귀기가 버거운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참 용납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며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인간관계란 참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는 분들은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장의 어려움이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일이 주는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일이 주는 어려움보다 두 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간관계 하면 잠언 3장 27-2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 3 가지 원리들을 배웠습니다:

1.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첫 번째 원리는 우리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3장 27-28절을 보십시오: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끄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우리에게 베풀 힘이 있을 때 베푸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2.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두 번째 원리는 우리는 까닭 없이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3장 29-30 절을 보십시오: “이웃이 네 곁에서安然히 살거든 그를 모해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까닭 없이 시비 걸로,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면 안 됩니다.

3. 지혜로운 자의 인간관계 세 번째 원리는 우리는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3장 31절을 보십시오: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 아무 행위든지 좇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자를 미워하시고(32절), 저주하시며 (33절), 비웃으시며(34절) 또한 부끄럽게 하실 것(35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19-2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인간관계에 대한 교훈은 한 3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을 피해야 합니다.

성경 잠언 20장 19절을 보십시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여기서 ‘말을 많이 사람’이란 바로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인데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사람은 바로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되 특히 남의 비밀(confidential information)을 누설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영어 성경에는 “두루 한담하는 자”를 “gossiper” 즉 수다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수다쟁이와 어울리지 말고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는 수다쟁이와 어울리지 말고 피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그러한 사람은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 때문입니다(19절, 11:13).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다쟁이를 피해야 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은 신뢰를 저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 외에도 잠언을 읽다 보면 수다쟁이를 왜 피해야 하는지 또 다른 이유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란 수다쟁이는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26장 20절을 보십시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으면 다툼이 쉬느니라.” 또 다른 이유는 수다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28절을 보십시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도 그리 생각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남의 말을 하기 좋아하는 수다쟁이는 다툼을 일으키고 친한 친구를 이간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뭐 어디 친한 친구만 이간시키겠습니까? 형제도, 자매도 이간시킬 뿐만 아니라 심지어 부부관계도 다투게 만들고 이간시킵니다. 어떻게 수다쟁이는 이렇게 사람들을 이간시킵니까? 바로 거짓 증언하므로 수다쟁이는 사람들을 이간시킬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 6장 19절을 보십시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과 어울리지 말고 피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잠언 20장 20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혹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 마음에 ‘아니 어느 자식이 부모님을 저주할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저주”란 단어를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저주”라는 의미 외에도 ‘하찮게 만드는’(경시하는, 과소평가하는)(belittle)이란 의미도 있습니다(Vine). 그 말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란 말씀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하찮게 만드는 자’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번역하면 이젠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식은 좀 없을 수 있을지라도 부모님을 하찮게 만드는 자식들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경시하는 자식들, 부모님을 대수롭지 않게 보고 업신여기는 자식들, 부모님을 얕보고 과소평가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5장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영어 성경에는 부모님을 ‘curses’(저주)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한국어 성경에는 부모님을 “비방”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님을 비방하는 것, 부모님을 욕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부모님을 저주하던지 하찮게 만드는 자는 십계명 중 5계명인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위반하는 것입니다(출20:12). 그 위반에 대한 형벌을 성경 출애굽기 2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라”(참고: 레20:9). 어느 주석에서는 이 말씀을 부모님을 “저주”(cursing)하는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부모님에게 ‘반항하는(rebelling against) 자도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Walvoord). 오늘 본문 잠언 20장 20절 하반절에서도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는 말씀도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Walvoord).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과 관계에서 그 분들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모님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그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님을 경시하며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 분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복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잠언 20장 22절을 보십시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누군가 나에게 고통을 입혔으면 우리 사람의 심리는 내가 당한 고통에 대해 그 사람에게 갚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보다 “네 원수를 미워하라”(마5:43)을 더 좋아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데 우리는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상대방에게 갚아주고 싶어 하는 심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신19:21).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잠언 24장 2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또한 성경 잠언 20장 22절에서도 우리에게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상대방이 나에게 고통을 안겨줬다고 나도 그 사람에게 고통을 안겨주려고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 상대방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려면 세상 사람들과 뭔가 좀 달라야 하지 않나요? 그 달라야 할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잠20:22). 여기서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로마서 12장 19절을 봐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즉, 우리가 친히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는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갚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 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지 라는 말입니다. 성경 나훔1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복 때에(렘51:6) 우리를 위해 보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사업관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잠언 20장 23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바른 사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잠언 20장 23절을 보십시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우리가 “저울”하면 잠언 16장 11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와 미워하시는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여기서 “간칭”, “명칭”, “추돌들”은 다 “저울”을 가리킵니다. 저울을 가리키되 정확히 측량하는 저울을 가리킵니다. 즉, 이 저울은 “공평한” 저울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한결 같은 저울”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20장 23절 외에도 10절에서 잠언 기자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결 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한결 같지 않은 저울을 자기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즉,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 속이는 것을 자기도 미워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정직하지 못한 것(부정직)(dishonesty)을 우리도 미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평한 추를 기뻐하시는 것처럼(11:1) 우리 또한 공평한 추를 기뻐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아마도 솔로몬 왕 당시에 상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저울추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객들의 눈을 속여 물건의 품질이나 중량이나 분량을 속여서 더 많은 것을 그들에게서 갈취하였던 것 같습니다(참고: 잠 11:1). 그 상인들이 고객들을 속인 방법은 '이중 저울'과 '이중 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부정직한 상인들은 곡식을 팔 때에 가벼운 저울추와 작은되를 사용하여 곡식을 적게 주었고, 곡식을 살 때에는 무거운 저울추와 큰되를 사용하여 곡식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적용한다면 사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업을 해야 하는지 귀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바른 사업관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른 사업관이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을 추구하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부정직을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 상인들이 상업 행위에 있어서 부정직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업 행위를 다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불의한 이익을 얻고자 부정직하게 행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상업 행위에 있어서 정직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바른 사업관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고보서 4장 13-17절에 나와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

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배워야 할 교훈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선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알고도 하지 않으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8절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성경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십시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예배)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만일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선을 행하면 언젠가는 낙심할 날이 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하나님께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성경은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성경 시편 49편 6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성경은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고후10:17),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11:30).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자기들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는게 아니라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되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9장 23-2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자랑하되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사업하여 이익을 남기고자 함에 있어서 이런 저런 계획을 세우겠지만 항상 자신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줄을 알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하는 마음 자

세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4-15절을 보십시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 마음 자세와 습관을 갖는다는 것 참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노력 중에 하나는 저는 안개 낀 날 운전하면서 안개를 볼 때 나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이 야고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러다 보면 저는 더욱더 죽음의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리할 때 그리스도인 사업가들도 죽음의 관점을 가질 때 무슨 이익을 남겨야 하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돈의 이익 외에도 좀 더 가치가 있고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통해서 어떠한 이익을 원하시는지를 기도하면서 고민해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3-17절 외에도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이 꼭 알아야 할 성경구절은 신명기 8장 17-18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 .”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 손의 힘으로 재물을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믿는 그리스도인 사업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헛되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바른 사업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바른 사업관이란 정직하게 사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선을 행해야 하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고 항상 자신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줄을 알고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고 말하는 마음 자세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사업가들은 재물을 얻었을 때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이 재물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상속관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20장 21절).

여러분, “상속”이란 무엇입니까? 인터넷 위키백과를 보니까 “상속이란 사람의 사망에 의한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의 포괄적인 승계를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상속의 중심은 재산상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위키 백과). 오늘 본문 잠언 20장 21절을 보십시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한국 성경에는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쓰여 있는데 여기서 “산업”이란 영어로 “inheritance”, 즉 “상속”(또는 유산)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상속을 “처음에 속히 잡”았다는 말은 아마도 자식이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한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Walvoord). 그 좋은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누가복음 15장 11-20절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12절). 그래서 아버지가 자신의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습니다(12절). 그 나눠준 재산을 받았을 때 그 둘째 아들의 기분은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같으면 부모님의 재산 중 여러분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받으면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재물을 받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13절). 결국 그 둘째 아들은 그 상속(유산)이 그에게는 복이 되지 않았습니다(잠 20:21).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면 그는 오늘 본문 잠언 20장 21절을 20절과 연관을 시켜서 해석을 하셨는데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를 가리켜 “불량자”라고 말하면서 20절과 21절은 그 불량자가 재산 문제로 그 부모를 거슬러 거역함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불량자들은 주로 금전 문제로 가정에서 분쟁을 일으키되 자기들 책임 이행은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권리만 강요하여 부모님과 충돌하며 심지어 악담과 저주도 사용한다고 하였습니다(박윤선).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자녀들이 부모님의 유산 분배로 인하여 분쟁하는 모습이 참 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국 뉴스에 한국에 큰 기업들 회장들이 그리 재산이 많으면서도 부모님에게 받은 상속(유산) 문제로 분쟁하는 모습을 보고 참 본이 못 된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본문 잠언 20장 21절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처음에”란 단어만 나오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at the beginning”(“처음에”)라는 단어와 더불어 “at the end”(나중에)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결국 부모님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받을 때 처음에는 물질의 복을 받은 것 같아 행복해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 유산이 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제 생각을 말한다면 나중에 그 물려받은 재산으로 인하여 형제들끼리 분쟁하므로 형제 관계도 단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젠가 인터넷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 중 미국 경제전문 매체 비즈니스인사이드가 자신의 재산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기로 한 거부 15명을 소개한 내용이 나와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인터넷). 이들을 가리켜 “상속을 거부한 거부”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15명 중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 몇 사람만 언급한다면 워런 버핏,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 이베이 창업자 피에르 오미디아르,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 그리고 홍콩

액터배우 재킨 찬 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좌우명은 ‘물려받은 재산이 인간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석유 거물 피켄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돈을 벌고 기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 하지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데 그것이 보통 이롭기 보다는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홍콩 액션 배우 재키 찬은 “아들에게 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돈을 벌 것이고, 능력이 없다면 그저 내 돈을 낭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자식들에게 뭔가 할 수 있다고 여길 만큼 재산을 주고 싶지, 아무 일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있는 유산(재산) 물려주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러한 상속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합니까? 사람들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상속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상속관이란 무엇입니까? 과연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상속관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자”란 누구입니까? 유업을 이어 받는 자가 아닙니까? 그 뜻은 “하나님 나라의 재산상속권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엡3:6).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재산상속권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영생을 상속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십시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의 소망을 지닌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늘에 예비 된 상속인 영광스러운 새 몸과 하늘의 처소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0-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장차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 우리는 영광의 몸의 형제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요14:1-3)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생을 얻은 자들로서 장차 우리에게 상속될 영광의 몸과 영원한 하늘나라 처소를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받은 상속보다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지혜를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성경 잠언 19장 14절을 보십시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는 상속(집이나 재물)도 귀하지만 그 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께로 부터 말미암은 지혜로운 아내가 더 귀한 상속입니다. 여기서 초점은 아내라기보다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상속은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부모님에게 받는 집이나 재물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바른 미래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잠언 20장 24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바른 미래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잠언 20장 24절을 보십시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워서 목적을 향하여 추진하다가 결국에 가서는 여러분 계획대로 안 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로 무슨 생각을 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참 사람 일이란 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내 마음도 내가 원하는 데로 잘 되지 않는데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고 계획 한대로 이루고자 열심히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도 그게 어찌 우리 계획한(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어쩔 때는 내 계획대로 잘 될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경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 성경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이 잘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므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여기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란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는 “아무도 한 치 앞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되어 갈 때 기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형통할 때 행복감을 누리므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 가로 인도”하실 때에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선택하여 걸어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시23:2, 4) 성경은 “생각하라” 혹은 “되돌아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전 7:14).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곤고한 일, 어려움을 당할 때 과거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되 우리는 과거에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건져주셨는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은총을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과거관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현재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동일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임을 믿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고 건짐의 확신을 가지고 현재의 어려운 현실을 접하게 됩니다. 비록 아직 어려운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자신이 변하였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 어려운 상황을 뚫고 나아가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행복)만 주시지 않으시고 곤고한 일 또는 어려움도 당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전7:14). 비록 우리가 볼 때에는 우리가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을 알면 더 좋을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사람은 우리의 장래를 알면 분명히 하나님께 더욱더 범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알면 분명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자기가 주인인양 마음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게을러 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포기하면 될 때로 되라고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장래는 모르는 게 더 좋습니다. 축구 게임도 이미 다 끝나 점수를 알고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아예 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좀 모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장래를 몰라야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사실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장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경 이사야 4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와 같으냐? 나서서 말해 보아라. 누가 처음에 장래의 일을 미리 들려주었느냐? 앞으로 될 일을 우리에게 말해 보아라”(공동번역). 여러분, 어느 누가 앞으로 될 일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장래의 일을 미리 들려 줄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장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장래의 일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모든 장래의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잠16:1, 9).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지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렘29:11).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생각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주님 안에서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형통할 때뿐만 아니라 곤고할 때에도 우리는 미래와 희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그 주님 앞에 서서 회계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히13:8).

그리스도인의 바른 헌신관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잠언 20장 25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선 우리는 바른 헌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 잠언 20장 25절을 보십시오: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덮이 되느니라.” 여러분, 서원 기도 하면 성경에 누가 생각나십니까? 저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한나”하면 임신하지 못했던 여인으로서(5-6절)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1장 10-11절을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린 한나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19절) 한나를 잉태케 하시사 사무엘이란 아들을 주셨습니다(20절). 그리고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아기 사무엘을 젖을 떼 후에 그를 실로 여호와의 집에 데리고 가서(24절) 하나님께 그 아이를 평생 드렸습니다(28절). 그녀가 엘리 제사장에게 한 말을 들어 보십시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26-28절). 한나란 여인은 자기의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받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 받아야 할 헌신입니다. 우리가 본 받아야 또 다른 헌신의 좋은 예는 신약 성경 예수님의 이야기에도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다름 아닌 마리아라는 여인이 “지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야기입니다(요12:3). 여기서 “마리아”란 여인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림을 받은 나사로의 동생이요 또한 마르다의 동생인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은 여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보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리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는 “이 향유를 어찌하여 삼백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합니다(4-5절). 가룟 유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6절).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 안에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가 있는가 하면 가룟 유다와 같은 도둑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을 생각할 때 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과 잘못된 헌신관을 가진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잘못된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누구인지 세 가지로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잘못된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입술로만 헌신한 자입니다.

솔직히 교회 안에서 말로만 주님께 헌신하고 말로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만 많고 행동이 없는 섬김입니다. 이러한 입술만의 헌신자는 결코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많습니다.

둘째로, 잘못된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마음의 탐심을 품은 자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참 말로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그 섬기는 마음의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마음에 탐심을 품고 교회를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헌신자들은 교회에 해를 끼칠 위험한 많은 사람들입니다.

셋째로, 잘못된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경솔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잠언 20장 25절을 보십시오: “함부로 이 물건을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물이 되느니라.” 여기서 경솔하게 헌신한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서원하여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받치겠다고 말은 해 놓고 다시금 생각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경솔하게 헌신하는 사람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입니다(전 5:6). 예를 들자면 부흥집회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부흥사 목사님이 헌신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 하여 나아가서 헌신했다가 부흥 집회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서 다시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헌신할 것 같이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신명기 23장 21-23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 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네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네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성경 민수기 30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그러면 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로, 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하되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신실하게 이행하는 자입니다.

둘째로, 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자입니다.

성경 시편 110편 3절을 보십시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헌신하되 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정직합니다. 그 이유는 그는 주님께서 마음을 감찰하

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 역대상 29장 17절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셋째로, 바른 헌신관을 가진 사람은 겸손히 주님께 받치는 자입니다.

성경 역대상 29장 14절을 보십시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경솔히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불순한 동기로 하나님께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께 헌신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신중하게 서원한 것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즐거이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도덕 생활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시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사도행전 24장 24-27절).

저는 “내 아이 도덕지수 높이는 법: IQ만 좋아서는 안 된다 MQ(도덕지수)높은 아이가 성공한다”란 인터넷 기사를 보았습니다. 미국 하버드대학교 로버트 콜스 교수가 주장한 것으로, 선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는 IQ(Intelligent Quotient: 지능지수)가 높은 아이보다는 MQ(Moral Quotient: 도덕지수)가 높은 아이가 성공한다는 주장이 대두되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가 도래한 이후로 급속도로 변화하는 세상은 모든 사회 구성원들에게 평생 교육과 자기개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10년 뒤에는 웬만한 전문지식만 가지고는 남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경쟁력을 키워준다면서 영어니 악기니 운동이니 열심히 시켜보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그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이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 자신이 모범을 보이며 다른 사람들에게서 헌신과 참여를 끌어내는 도덕지능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지능이 높은 사람이 남을 섬길 줄 알며 함께 성공하는 법을 압니다. 도덕이란 다름 아니라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 세상을 바로 보는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60년간 하버드대를 졸업한 사람들을 추적한 결과, 학교 성적과 성공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조사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유머가 풍부한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친절한 사람,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사람 등 도덕성이 높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인터넷).

우리 눈에 띄는 위기는 도덕성의 상실입니다. 도덕이라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은 하지 않고 옳은 일은 해야 한다는 의지의 실천입니다. 설령 옳지 않은 일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은 그나마 도덕의 뿌리가 남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옳지 않은 일을 하면서도 전혀 거리낌이 없이 해치워버리는 현상을 우리는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러한 경우를 양심에 화인을 맞았다고 표현합니다(딤후 4:2). 윤리 신학자 R. 니이버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 그 삶의 도덕성일 수밖에 없다”(인터넷).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덕성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도덕적 수준을 낮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4-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24절) 복음을 믿는 사람이 행해야 할 도덕에 대해서도 말한 것을 우

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도덕이란 “의와 절제”입니다(25절). 여기서 “의”(righteousness)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의를 말하기보다 복음을 믿는 사람이 행해야 할 도덕적인 행위를 말합니다(유상섭). 도덕적인 행위란 유대인의 총독으로서 벨릭스는 로마법과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모든 것을 공정하고 옳게 처리해야 합니다(유상섭).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총독 벨릭스의 양심에는 찢리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벨릭스는 이와 거리가 먼 부정한 통치를 일관해 온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유상섭). 이 바울의 권면은 우리 기독교 정치인들에게 잘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정치인들로서 도덕적인 행위가 바르고 정직해야 합니다. 결코 부정과 부패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후6시30분, 채널7에서 이락에 대한 뉴스가 나와서 좀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그 뉴스 내용은 이락에서 그래도 제일 좋다는 병원을 취재한 것인데 의사를 인터뷰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일 기본적인 의료도구나 약품이 없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병원이 이러한 것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부정, 부패라고 합니다. 즉, 이락의 그 많은 석유를 하루에 어느 정도 뽑아내서 매일 그 석유로 버는 돈이 참 크지만 정치인들 중 부패한 사람들로 인하여 이락 바그다드 그 유명한 병원에도 제일 기본적인 것들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이 그 돈을 가로채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렇게 부정, 부패에는 부패한 정치 자금, 즉 돈이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두 번째로 “절제”(self-control)에 대해서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절제”란 각종 욕망의 통제와 억제를 가리킵니다(유상섭).

벤자민 플랭크린, 그는 가난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나 평생 학교라고는 1년 밖에 다녀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교육과 마아트 목사님의 청교도 교육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과 독서하는 것을 체득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철학회 창시자가 되었고, 피뢰침의 발명가가 되었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재산을 얻기 위해 덕을 팔지 말고 권력을 얻기 위해 자유를 팔지 말라는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는 어릴 때부터 13가지 덕목을 정해서 평생 지켰습니다. 그 덕목의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고전10:23). 성경에서는 덕의 최우선 지침을 ‘절제’로 보고 있습니다. 절제하는 자는 덕을 세우는 것이며, 덕을 세우는 자는 절제하는 자이며, 그는 시험에 빠지지 않으며, 시험 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덕은 헬라말로, ‘집을 세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성은 세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미는 멸망해도 덕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속담을 가지고 있습니다(인터넷).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4-27절에서 왜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이 절제에 대해서 권면하였습니까?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총독 벨릭스는 물질에 대한 욕심(탐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바울을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했습니다(26절). 아마도 총독 벨릭스는 바울이 구제헌금을 이방인 교회들에게서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고자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벨릭스는 그 돈을 노리고 바울에게 접근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도덕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마음의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10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에 우리를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을 사모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의 욕심을 버리고 돈에 깨끗해야 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 정치인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나 돈에 관해서는 깨끗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총독 벨릭스에게 절제에 대해서 권면한 또 다른 이유는 벨릭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의하면 부정, 부패한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당시 유부녀였던 유대 여자 드루실라(24절)의 빼어난 미모에 홀딱 반하여 그녀와 결혼하기 위하여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 마술사 아트모스를 통해 그녀를 설득하여 남편을 버리고 자기와 결혼하게 했다고 합니다(그녀는 벨릭스에 세 번째 아내라고 함). 다시 말하면, 총독 벨릭스는 성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벨릭스 총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한 복음을 믿는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절제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 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적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에 욕망도 절제해야 하며 또한 성적 욕망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돈에 관하여서도 깨끗해야 하고 또한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은 성적 정결함을 도모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 목회자들이 성적 욕망에 이기지 못해서 교회 안에서 스캔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지는 여러분들도 이런 저런 뉴스를 접하여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점점 세상에 악해지면서 우리 사람들의 절제력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점점 절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치 않는 죄를 자기도 범하면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수 없이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총독 벨릭스처럼 절제력을 상실하여 불의를 행하고 있다면 바울이 벨릭스에게 전하였던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사도행전 24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총독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뿐만 아니라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장차 있을 심판을 언급할 때 불신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대해서 뿐 아니라, 이 땅에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들이 받을 심판에 대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밝혔을 것입니다(17:30-31)(유상섭). 그 때 총독 벨릭스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는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의 죄가 들춰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불의를 행하며 또한 물질이 욕심과 성적인 욕망 가운데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의 권면은 충분히 두려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말을 중단시키고 그에게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고 말했습니다(24:25).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총독 벨릭스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또한 복음의 합당한 생활인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과 절제 있는 삶에 대해 권면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충격 속에서 변화 되었는가?’입니다(24-25절).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총독 벨릭스는 사도 바울의 복음과 복음의 합당한 삶에 대해서 도덕적인 교훈을 받고 난 후 충격과 두려움 속에서도 바울에게 뇌물을 받으려는 모습을 보면 그는 변화 받기를 거부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또한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유대인의 마음을 연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을 모르는 부패한 정치가

는 자기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을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박윤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도덕 생활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들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를 행해야 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는 자들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올바르게 정직해야 합니다. 또한 절제력을 상실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 중 하나인 절제를 해야 합니다(갈 5:23). 물질의 욕심이던 성욕이던 우리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덕 지수(MQ)를 높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부심

“날이 새매 상관들이 아전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이 말대로 바울에게 고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전들이 이 말로 상관들에게 고하니 저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사도행전 16장 35-40절).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를 비하하며 '나는 아무 것도 아니다, 나는 은혜를 받거나 축복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은 무서운 파멸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중 하나는 자아학대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거울을 볼 때마다 자기를 보고 "이 못난 녀석아, 이 죄인아, 이 더러운 녀석아, 너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자격이 없어"라고 자학할 정도로 열등의식과 좌절감에 빠져 자존심을 상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등감이란 무엇입니까? 국어사전적 의미로 열등감은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무가치하게 낮추어 평가하는 생각"을 뜻합니다. 중국어로도 열등감은 "스스로 비천하게 여기고 알잡아 보는 마음"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결국 열등이란 나 자신의 체격, 용모, 능력, 학벌 등을 다른 사람의 것과 비교하여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거나 무가치한 인간으로 비하시키며 낮추어 평가하는 감정입니다.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건전하지 못한 자아개념으로 인하여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열등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면 소극적이 되고, 만사에 자신이 없어지며, 이 감정 때문에 아무 것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열등감에 빠지는 사람은 자기의 부족한 면만을 확대 해석하여 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영문학자며 철학자인 루이스(C.S.Lewis)는 사단이 현대인들의 인격과 의식을 파괴하는데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비교의식"인데 이는 열등감의 배후 세력이라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 사단의 무기에 공격을 당해 열등감을 가지고 소극적인 삶, 만사에 자신이 없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움이 있으며 또한 자기학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때때로 열등한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데서 오는 완벽주의적 증상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열등을 느끼는 부분을 덮고 위장하고자 아주 철저하게 애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부심이란 무엇입니까? 자부심이란 자기존재 가치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J. 하드필드 박사가 자신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넌 틀렸어. 이젠 끝났어!"라고 자괴감을 줄 때 우리는 실제 가진 능력의 30%도 채

발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넌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니가 못해!"라고 자신감을 줄 때, 우리는 무려 능력의 500%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인터넷).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긍정적인 존재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예수님 밖에서 뭔가 자부심을 느낄만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우리는 그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된 영원한 자부심과 무한한 존귀성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사야 43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의 관점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 자신의 존재 가치가 얼마가 귀한지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다시피 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때에도 그들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행 16:25). 그리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곳에 남아있으므로 결국 간수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으므로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34절). 그런 후 날이 새매 바울과 실라를 놓아 주려고 상관들이 아전(법집행관)들을 보내었고 그들은 간수를 통하여 바울과 실라에게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고 말을 전했습니다(35-36절). 그 때 사도 바울의 답변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 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37절). 이 얼마나 담대한 바울의 태도입니까?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과 실라가 로마 사람임을 밝힌 것입니다. 분명히 귀신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후 그 여종의 주인들이 돈을 더 이상 벌 수 없음을 보고(19절)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market)로 관원들에게 끌어가서 상관들 앞에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하였을 때(20-21절)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 사람임을 밝히지 않았습니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야 자기와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법대로 타당한 재판 절차를 받지 못하고 감옥에 집어넣었으니(유상섭) 그 상관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라고 담대히 바울은 말하였습니다(37절). 왜 사도 바울이 지금에서야 자기와 실라가 로마 사람임을 밝히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도 바울이 상관들에게 자기와 실라가 잡혀서 상관들 앞에 있었을 때 자기들이 로마 사람임을 밝혔다면 그리 많이 매 맞고 혹심한 육체적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임을 밝히지 않고 다 고통을 당한 후 지금에 와서야 자신들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는지 흥미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자신들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지 않았기에 결국 간수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34절). 만일 사도 바울과 실라가 치유 받은 귀신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송사할 때 로마 사람이라고 밝혔다면 감옥에도 갇히지 않을 것이고 그

렇다면 감옥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기적적인 기도의 능력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간수하고의 만남도 없었을 것이기에 그 간수와 그의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오늘 본문에 34절에 나오는 기록 같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기도의 사람들인 사도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이뤄진 것을 묵상할 때 사도 바울과 실라의 자세는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였습니다(5:41).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서 풀려나는 상황에서 자기와 실라가 로마 사람임을 밝혔습니다(16:27). 그 때 아전(법집행관)들이 상관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로마 사람임을 고했습니다(38절). 그 때 상관들은 두려워했습니다(38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비시민권자들에 비하여 아주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재판 받게 되어있는데 그러한 공정하고 정당한 절차가 없이 로마 사람인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로 매라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기 때문입니다(22-23절). 그러니 이러한 사실이 로마 당국에 보고되면 그 상관들(아미 치안 판사들)은 책임을 면할 수 없었기에 그들은 친히 감옥으로 와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바울과 실라를 인솔하여 나와서는 도시를 떠나줄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39절). 얼마나 당당하게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감옥을 떠나고 있습니까? 자기의 권리를 찾아 로마 사람의 대접을 받는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과 실라는 로마 사람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들할찌 모르지만 오래 전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민권만은 못하더라도 일단 미국 영주권이라도 취득하게 되면 세계인들이 부러워하는 미국 시민으로 인정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 보통 이민자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1995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나아갔을 때 비자를 받고 나아가지 않아서 일본 후쿠오카 한국 대사관에 간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부산에 살고 있었던 사촌 동생하고 갔었는데 일본 비행장에 내려서 입국하려고 했을 때인가 사촌 동생이란 저랑 다 무엇인가를 써서 냈는데 저는 미국 시민권자여서 그 일하는 사람이 직접 고쳐주고 들어가라고 한 반면에 제 사촌동생은 한국 시민권자이기에 저기 가서 고쳐 오라고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제 사촌동생은 기분이 매우 나빴었습니다. 그 때 미국 시민권의 힘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작은 제 자신의 삶 속에서 겪었던 예이지만 미국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렇게 편안면이 있었습니다. 결국 미국 시민권자로서 자기의 권리를 누린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할 때 어찌면 자부심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이나 한국이 아닌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빌립보서 3장 20-21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천국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그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는 홀연히 변화되어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금지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결코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가지고 자아학대하며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물질적 부요함과 세속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계3:16-17). 그 이유는 세속적 자부심은 결국 영적 궁핍함의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속적으로

는 궁핍한 가운데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내게 능력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빌 4:13).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십시오: “...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떳떳하게 주님 안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 있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아가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시편 101편 2절).

사람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가족 식구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잘 주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못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도 잘 못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도 잘 모르는 우리 마음을 잘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본받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종교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행실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실은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듯해 보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까지도 받고 더 나아가서 존경까지도 받습니다. 어쩌면 처음에 칭찬을 받을 때에는 그들은 양심이 가책을 느끼며 또한 마음으로 괴로워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이켜 마음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못하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들 앞에서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삶을 살고자 애씁니다. 그러한 삶이 지속되다 보니 결국에 가서 그들은 사람들 보기에 바른 신앙생활을 흉내 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의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마15:8). 과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입니까? 마음입니까 아니면 행실입니까?

성경 시편 101편 2절을 보면 시편 기자 다윗 왕은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며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 묵상 제목을 “완전한 마음으로 완전한 길을 걷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목을 그리 적고 나서 생각해 보니 이 말씀 묵상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이란 말에 동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생각에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으로서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을 걸으셨던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완전한 마음과 예수님의 완전한 삶을 본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에서 다윗 왕이 말하고 있는 “완전한 마음”과 “완전한 길”이란 ‘흠이 없는 마음’(a blameless heart)과 ‘흠이 없는 삶’(a blameless life)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온전히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는 흠이 없는 마음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실보

다 마음을 우선시에 해야 하는 이유는 마음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행실이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는 마음을 추구하므로 그 흠이 없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흠이 없는 행실이 표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흠이 없는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첫째로, 흠이 없는 마음은 사악한 마음을 멀리합니다.

성경 시편 101편 4절을 보십시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사악한 마음”이란 간사한 마음, 안과 밖이 다른 생활을 말합니다(박윤선). 즉, 사악한 마음이란 위선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은 이러한 위선, 즉 사악한 마음을 멀리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거짓을 행하는 자를 멀리하였습니다(7절). 그는 거짓말하는 자를 자기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7절). 그러므로 다윗은 악한 일을 멀리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악인을 멸하므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성에서 다 끊고자 했습니다(8절).

흠이 없는 완전한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악한 마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간사한 마음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위선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과 밖이 다른 생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일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악한 마음과 거짓된 마음을 멀리하므로 위선과 악한 일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선한 일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둘째로, 흠이 없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 시편 101편 5절을 보십시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 왕은 눈이 높고 헐뜯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가 왕으로서 눈이 높고 교만한 자를 용납하였다면 그 교만한 자가 나라 일에 참관하면, 안하무인의 심리를 가지고 민중을 학대하며, 고위에만 앉으려고 하다가 필경 반역을 도모할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한 자는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입니다(박윤선). 즉, 교만한 자는 “은밀한 악선전으로 남을 해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교만한 간신들을 다윗 왕은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멸하였습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만한 마음을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우리는 교만한 자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결코 우리 이웃을 은근히 헐뜯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들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이웃을 해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사랑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이웃을 우리 자신보다 낮게 여기며 우리 이웃의 일을 돌아보며 살아가야 합니다(빌 2:3-4).

셋째로, 흠이 없는 마음은 충성된 마음입니다.

성경 시편 101편 6절을 보십시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피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 왕은 자기 백성들을 두루 살피면서 그 땅에 사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배교자들의 행위(the deeds of faithless men)를 미워하였습니다(3절). 그리고 그는 충성된 자들(the faithful)을 가까이 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기의 일꾼들로 삼아 수종들게 하였습니다(6절). 그 이유는 그에게는 간사한 사람들이나 교만한 사람들이 아닌 충성된 일꾼들이 필요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 왕은 완전한 길로 행하는 충성된 일꾼들로 하여금 자기를 수종들게 하였습니다(6절).

흠이 없는 완전한 마음을 추구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교자의 행위를 미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성된 자의 행위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리 마음이 충성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주님께 충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말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입니다(고전 4:2).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합니다(눅16:10). 그리할 때 우리는 큰 것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10절). 우리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계2:10).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주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마 25:21, 23).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귀환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8-23절).

만일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성경은 우리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한 교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3절). 왜 우리가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5절).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후히 주실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시련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므로 인내를 온전히 이뤄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므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4절).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리석은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들로서(고전 3:1-4) 그들의 신앙은 너무 유치하여 불신자의 정도에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과 같아서(1절) 온전한 믿음이 없기에 하나님의 집이 기초(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견고히 서 있지 못하고(11절) 거짓된 교훈에 요동하여 예수 그리스도란 터 외에 다른 터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는 사단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그들은 밥이나 고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오히려 젓과 같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기본 교리만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2절). 그들은 하나님의 깊은 교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한 마디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자들 이었습니다(히 6:1).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밭이요(고전 3:9) 그들이 자랑하던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 것도 아니고(7절) 그저 심고 물을 주는 주님의 사역자들이요 오직 그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있었습니다(5-7절).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건축자인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교회를 섬기지 않고(10절) 또한 교회의 터(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도 반석위에 견고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11절). 그 원인은 그들은 좋은 재료인 순결한 하나님의 진리보다 나쁜 재료인 거짓 교훈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2절). 그 결과 그들은 아직도 부패한 성질의 영향을 받아 “사람을 따라 행”하므로(3절)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시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다(16-17절).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따라 행하기보다 육신에 따라 행하므로 자기 몸으로 음행을 했을 뿐만 아니라(6:18)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신 교회의 연합성(하나됨)을 깨는 분쟁(1:10, 11; 3:3-4)과 나뉘(12:25)의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자랑하면서 시기와 분쟁 가운데 당파를 지어서 교회의 하나됨(연합성)을 지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3:3-4). 과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었습니까? 과연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나뉘를 막고 교회의 하나 됨을 잘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3장 18-23절에서 한 마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이나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연합성)을 잘 지켜 나아가는지 성경은 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교회 안에 분쟁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잠3:5-7). 성경 예레미야 9장 24절을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진정한 명철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진정(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지하는 또 다른 성경구절은 바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그 구절을 보면 바울은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마디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스스로 지혜롭다가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입니다(21절).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이러한 교만한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연합성)을 깨트리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던 신앙의 초기에는 교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짐작할 수가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장 26-29절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명히 자기들이 이 세상의 관점으로 지혜나 문벌이나 능함이나 있는 자가 많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바울을 통하여 십자가의 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케 하시사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라 부르심을 입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교만해 져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게 된 자들이 생겨난 것입니다(3:18). 왜 이러한 자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생겨났을까 생각해 볼 때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자기 지혜를 의지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내어버려 두셨습니다(19절, 참고: 욥5:13). 그리고 이렇게 자기 꾀에 빠진 하나님 보시기에 이 어리석은 자들(19절)의 생각은 헛것(useless)이었습니다(20절). 그러나 스스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결코 헛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20절).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말하였습니다(18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지혜롭게 보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입니다(19절).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18절). 다시 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여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의 지혜는 참으로 어리석고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헛된 지혜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우리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시기와 분쟁 속에서 교회의 하나됨(연합성)을 깨는 죄를 하나님께 범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고 헛된 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자입니까?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주님의 몸 된 교회는 하나됨(연합성)을 지켜 나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주님의 교회의 하나 됨을 신실하게 잘 지켜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마지막 둘째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21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미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1:31).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추종하는 지도자인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게바) 등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12절).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같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들, 세상의 약한 것들, 세상의 천한 것들 그리고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하시사 예수님을 믿어 구원케 하셨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27-28절). 그 이유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29절).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종하는 지도자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자신의 공로와 우리 자신의 능력과 우리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추종하는 지도자를 자랑하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지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일

니까?(10-13절)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우리 사람들의 공로와 사람들의 능력으로 되었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 사람을 자랑하는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잃어버리고 인간 공로 의식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인간 공로 의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사람을 자랑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3:22). 각자 자기들이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지도자 중심으로 당파를 저서 그 지도자를 자랑하므로 말미암아 결국 고린도 교회가 시기와 분쟁으로 인하여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당파를 저서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일을 경고하고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였습니다(21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기 때문입니다(21절).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영적 지도자들인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게바)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인 만큼 그 인물들을 특수 취급하여 자랑거리고 여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기 때문에(22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들을 자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도들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에(고후 4:15) 그 유익을 누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MacArthur).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교회 지도자인 사람을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 당파를 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연합성)을 잘 지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 목상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하나됨(연합성)을 지켜 나아가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인간의 공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공로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지 결코 우리 사람의 공로와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고전 1:27-28).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30절).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3:23). 이것이 바로 교회의 나뉘음을 이겨 나아가는 제일 중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바로 ‘우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나뉘는 치유와 교회의 영적 연합의 원천(근원)이 되신다는 말입니다(MacArthur). 그러므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므로 교회의 분쟁과 나뉘음을 끝내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일치와 연합(하나됨)을 힘써 지켜 나아갑니다. 그러한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행전 7장 55-60절).

과연 “성령 충만은 무엇입니까?”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성령충만에 대해 이러한 말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이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일하기는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여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한다”(인터넷).

첫째로 성령 충만이란 그리스도의 충만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14절을 보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며 그 이름이 증거되었습니다. 성령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어려움을 당하자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행 4:29). 그분은 자기 모습을 강조하지 않고 그분이 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기에 성령님은 “숨어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남을 뜻합니다.

주께서도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5장18절을 보면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골로새서 3장 16-18절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켜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로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 대신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로 바꾸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충만이란 말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히 거한다는 것은 같은 뜻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순히 우리의 감정적인 변화가 아니고 영원하신 진리이신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히 지배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은 술 취함으로 비교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중추신경을 지배해 버리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되 그분의 말씀 다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우리 속에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있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목이 곧은 사람들로써 성령님을 거슬러서 분개 가운데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성경 사도행전 7장 55-60절에는 목이 곧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달리 성령 충만하였던 스테반이 나옵니다. 과연 성령 충 크리스천은 누구인지 한 세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보고 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5-56절을 보십시오: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스테반이 보고 말한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을 때 그가 본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이었습니다(55절). 여기서 스테반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인자 예수님을 보았는데 왜 예수님께서서는 서 계셨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신약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증거합니다(유상섭).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습니까? 학자들의 해석은 다양합니다. 순교자 스테반이 죽은 후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영접하시고자 예수님께서 일어서 계셨다는 해석도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서서 계셨던 이유는 유대인들의 법정에서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증인으로서 그의 종인 스테반의 메시지와 사역을 증언하시기 위해서라는 해석도 있습니다(Wiersbe). 유상섭 교수님의 말입니다: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신 것은 그를 담대하게 증거하고 인정하는 스테반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그가 신실함을 잊지 않고 끝까지 굳게 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 기도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스테반에게 이러한 천상 비전을 허락하신 것은 한편으로는 그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북돋아 주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여전히 그의 신실한 증인을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법정 대리인과 중보자로 역할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롬 8:34; 히7:24 참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성경 요한일서 1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과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보고”란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질문하면,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2장 44-4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 성경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자’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동의어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서 들은 후 그 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로서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하는 목적은 듣는 이들로 하

여금 예수님과 사귀어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성령충만한 스테반은 그를 향하여 심히 분개하여 이를 갈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과 그를 고소하는 자유인들의 회당 소속의 지도자들에게 그가 본 하나님 우편에 서신 인자 예수님을 말했을 때(56절) 그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7장 57-58절을 보십시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새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과 고소하는 자유인들의 회당 소속 지도자들은 스테반이 말한 것처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51절)로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지금까지 사도들이 부활과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한 증거가 한치의 거짓이 없음이 입증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살인자들로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스테반이 말할 때 두 손으로 귀를 완전히 틀어 막았습니다(57절). 이들은 성령님을 거슬렀고 또한 성령 충만한 스테반을 거슬렀고 또한 대적했습니다(유상성). 이들은 더 나아가서 일심으로 분개함 가운데서 스테반에게 달려들어(57절) 그를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58절). 그 때에 스테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옹호하고 변호하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는 시편 31편 5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눅 23:46).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이 예수님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성령 충만한 스테반의 모습을 봅니다. 삶과 죽음의 갈림 길에서 스테반은 자기의 생명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거스른 자들은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돌을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기에 죽음 앞에서도 그 주님께 자기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도 스테반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생사의 문제 가운데서도 우리는 스테반처럼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용서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십시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성령 충만한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용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용서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리셨던 기도와 유사합니다: “아버지여 저

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23:34). 이 용서의 기도에는 자기를 죽이는 이 일에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울을 위한 용서 기도도 됩니다(유상섭). 그런데 이 스테반의 용서 기도가 즉시 응답이 되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배후 조종 인물인 사울은 즉각적으로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사울은 더욱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서서 전권을 휘둘렀습니다(유상섭). 그러나 결국 사도행전 9장에 가서 사울은 개종하여 스테반을 이어서 사도행전 9장부터 28장까지 고난 받는 증인의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렇게 용서의 기도는 힘(powerful)이 있습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Andrew Carnegie)의 “용서하는 마음”이란 글을 보십시오: 그는 “주위에 자기보다 훨씬 탁월한 인재들을 수없이 많이 두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어떻게 그런 뛰어난 인물들을 옆에 둘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카네기는 그 비결 중에 하나로 '용서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카네기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데는 아주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이었을 때, 그는 일하던 회사의 공금을 가방에 넣어서 전달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엄청난 거금이든 가방을 가지고 기차를 탄 그는 열차 난간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정신을 차려 깨어보니 가방이 없어졌습니다. 졸다가 열차 밖으로 가방을 떨어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은 충격에 카네기는 사색이 된 채 기관사에게로 뛰어가 사정을 설명하고 열차를 후진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턱도 없는 일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비교적 순박했던 때라, 딱하게 여긴 이 기관사는 몇 킬로미터 정도 열차를 후진시켜 주었습니다. 눈이 튀어나오도록 밖을 주시하고 있던 카네기의 눈에 문득 개울가에 떨어진 낫익은 가방이 들어왔습니다. 카네기는 비명에 가까운 환호성을 지르면서 열차에서 뛰어내려 가방을 열어 보았습니다. 다행히 현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오는 열차에서 계속 보물단지처럼 그 가방을 끌어안았습니다. 그 아찔했던 기억을 발단으로 해서, 카네기는 평생 실천에 옮길 중요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나는 젊은 사람이 아주 결정적인 큰 실수를 해도, 그가 사기성을 가지고 일부러 한 일이 아닌 이상 용서하고 품어 주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아무리 성실하게 노력해도 돌연히 당하는 사태가 일어나는 법인데, 그것 때문에 평생의 꿈이 좌절되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인터넷).

성경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스테반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5절)이었으며 또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8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와 더불어 변론하는 자들이 능히 당치 못했었습니다(10절). 결국 그 변론자들은 사람들을 충동시켜서(12절) 스테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 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스테반을 모함하였습니다. 그 때에 성경 사도행전 6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테반처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목하며) 신앙생활 하므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자입니다(은혜충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신앙생활 하므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입니다(믿음충만).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용서의 기도를 드릴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천에 옮기는 그리스도인입니다(권능충만).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지키는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와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 22장 2-3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볼 때에 신뢰할만합니까? 웬지 지금 우리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도 신용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신용을 잃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한 말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수많은 약속들을 내 뱉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약속한 것들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용이 없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여호수아 22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 정복에 나선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셋 반 지파 사람들을 불러서 (수22:1) 칭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을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그 책임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3절). 과연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므낫셋 반 지파 사람들이 끝까지 지킨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책임은 바로 그들이 다 무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시기까지 싸우는 것이었습니다(민 32:21-22). 처음에 모세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므낫셋 반 지파 사람들이 심히 많은 가축의 때로 인하여 가축에 적당한 곳인 야셀 땅과 길르앗 땅에서(1, 4절) 머물러 자기들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자기들의 유아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여(16절) 살면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길 원하므로(5절)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낙심케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함을 책망하였습니다(7, 9절). 생각해 보십시오. 아홉 지파 형제들과 므낫셋 반 지파 형제들은 지금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싸우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므낫셋 반 지파 사람들만이 자기들의 가축들과 유아들을 위하여 요단을 건너지 않으려고 모세에게 청했을 때 이 얼마나 싸우러 가려는 형제들을 낙심케 하는 일입니까? 참으로 무책임한 요청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므낫셋 반 지파 사람들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 순종하여 자기 가축들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자기들의 유아들을 위하여 견고한 성읍을 건축한 후에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 행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얻기까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17-18절). 또한 그들은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었기에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단 저편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19절).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므낫셋 반 지파 사람들에게서 “너희 입에서 낸대로 행하라”(do what you have promised)고 명하였습니다(24절). 그 때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명대로 종들이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자와 아내와 양떼

와 모든 가족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우리 주의 말씀대로 종들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25-27절). 그리고 그들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것을 다 지켰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죽은 후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명한 모든 일도 청종하여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명하신 그 책임을 지”켰습니다(수22:3).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므낫셋 반 지파 사람들은 자기들의 입에선 낸 말(약속)대로 끝까지 책임을 다 지킨 것입니다. 그들은 서원한 대로 실행하는 신의를 나타냈습니다. 이 얼마나 책임 있는 사람들이요 신뢰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르우벤 지파 사람들과 갓 지파 사람들과 므낫셋 반 지파 사람들처럼 입으로 낸 말(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지키되 우리는 신실하게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에서 말씀하신 선한 일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21:45)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면 우리는 오래 참으며 주님께서 주신 우리들의 책임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 지키며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을 인하여 내가 맹렬한 노에 잡혔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119편 49-56절).

하나님께서서는 저희 교회 말씀 집회 때 강사 목사님을 통하여 저를 책망하셨고, 깨달음을 주셨으며 또한 권면하셨습니다. 권면하시되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 바나바처럼 지도자를 세우는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길 권면하셨습니다(행11:24). 권면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또한 힘을 주셔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주님이 저(또한 교회)에게 주신 그 비전에 이끌림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저는 더욱더 수고하되 한 영혼, 영혼의 가능성을 보고 가능성 있는 지도자를 발굴하여 주님이 그들을 세우는 사역에 겸손히 동참하길 원합니다. 지도자들을 세우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과 죄악과 이 세상과 사단과 싸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세우는 사역에 전심전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49-56절 말씀 중심으로 한 네 가지로 생각하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삼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49절을 보십시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in my suffering) 있었습니다(50절). 교만한 자들이 그를 심히 조롱하였습니다(51절). 조롱한 목적은 시편 기자로 하여금 주님의 법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51절). 그리고 시편 기자는 주님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인하여(53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고통 중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되 그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49절). 다시 말하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길 하나님께 간구한 것입니다. 어떻게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으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잊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었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있었을 때 주님의 옛 규례를 자기 스스로 기억하였습니다(52절). 그리고 그는 밤에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님의 법을 지켰습니다(55절). 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49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곤란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나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대하며 또한 기다려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위로’로 삼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50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의 옛 규례를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습니다(52절). 여기서 “옛 규례”란 오래전부터 참된 것으로 드러나 있고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킵니다(박윤선). 즉, 시편기자는 그의 과거의 삶 속에서부터 참된 것으로 드러났고 견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는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의 신실성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영혼에 참된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할 수 있는 영적 자력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신 언약의 하나님을 “나의 소망”으로 삼아야 합니다(49절). 그리고 우리는 “나의 소망”이 되신 신실하신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고통 중에 있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50절) 우리는 우리의 위안이 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76절).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노래”로 삼습니다.

성경 시편 119편 54절을 보십시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자기의 소망과 자기의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노래”로 삼고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찬양을 드리되 그는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자신의 노래로 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나그네에게 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집이 있어도 그것은 임시적일 뿐입니다. 시편 기자는 영원한 집인 천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저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노래로 삼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이 나그네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면서 곤란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

서 행하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노래를 기도로 삼아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합3장). 마치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미하므로(행16:25)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감옥에서 건짐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간수의 영과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노래로 삼아 하나님께 간구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해야 합니다.

마지막 넷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유’로 만듭니다.

성경 시편 119편 56절을 보십시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망과 위로와 노래로 삼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소유로 만드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기회로 삼되 그는 자신의 삶의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심비에 깊이 적어 내려가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제 인생의 최대 위기였던 첫째 아기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성경 시편 63편 3절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적으셨습니다. 주님의 영원한 사랑이 저의 첫째 아기 주영이의 55일의 삶보다 나으므로 제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당시 제 마음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금 묵상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제 마음 심비에 그 말씀을 깊이깊이 적어 내려가고 계십니다. “나의 소유”가 된 시편 63편 3절과 요한복음 6장 1-15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저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케 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망”과 ‘나의 위로’와 “나의 노래” 그리고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여 승리의 찬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찬송가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의 가사 1절과 후렴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1절)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후렴)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찬송의 배경으로 나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의 고백을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또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기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의 은총과 나 같은 죄인을 일꾼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 감사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세요’라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나 또는 그의 동역 사역자들을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마땅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란 제목 아래 그리스도의 일꾼들에 대해 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세움을 받아 하나님께 칭찬 받는 축복이 있길 기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란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정체).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자기나 아볼로는 “주께서 각각 주신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servants)입니다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했습니다. 즉, 바울은 자기나 아볼로를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닙니다’(7절), ‘우리는 그저 주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또는 ‘주님의

섬기는 자들입니다'(5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 다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겨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3장 5절에서 사용된 '사역자들'란 단어나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사용된 "일꾼들"이나 동일하게 "servants" 즉 '섬기는 자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헬라어를 보면 두 단어는 동일한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사용된 단어는 "diakonoi"으로서 우리가 익히 들어 아는 "deacon", 즉 "집사"란 말이 그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섬기는 사람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쓰인 헬라어 단어는 그것이 아니라 "huperetes"라는 단어로써 문자적 의미는 배 밑에서 '노 젓는 사람'(under rowers)을 뜻합니다. John MacArthur 목사님에 의하면 그 당시 배 밑에서 노 젓는 노예들은 제일 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요,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요 또한 제일 경멸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단어가 나중에 와서는 모든 권위에 절대 복종하는 사람을 가리키게 된 것입니다(MacArthur). 결국 바울은 자기나 아볼로나 베드로를 자랑하는 육신에 속한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자기나 자기의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하인"(또는 "하급 노예")로서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주님의 노예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그것도 하급 노예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노예 의식이 있습니까? 만일 바울처럼 우리가 이러한 노예 의식이 있다면 주님의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에게는 "노예근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웬지 우리는 노예근성이나 노예 의식보다 '주인 근성'과 '주인 의식'이 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섬김을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섬김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겸손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성경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라는 자세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고전4:1).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겨야 합니다'라고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1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나 자기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들(stewards)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지기들"이란 무슨 말입니까? 그 문자적 의미는 집 매니저(house manager)(MacArthur)로서 바울은 지금 자기나 자기의 동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전에 감추었던 것이 이제는 계시된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와 자기의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집(3:9)인 그들에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나 다른 목사님들을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저나 다른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에게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 여

여겨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그리스도의 일꾼들의 필요한 것).

성경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하나님의 비밀인 복음을 맡은 자들로 마땅히 여겨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2절에 와서는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과 같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충성”(faithfulness)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맡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청지기들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일을 맡아 수종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과연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어떻게 교회를 섬기길 원하고 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길 원하고 계십니다(1절). 그리고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2절). 달리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는 충성된 자로 발견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할 것”이란 말은 “간절히 요구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나 자기의 동역자들이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간절히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faithfulness or trustworthy)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충성이란 일꾼이 그 주인에게서 일을 맡은 대로(그 지시한 대로) 어김없이(certainly) 그리고 지속적으로(consistently)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주님께서 명하시고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김없이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저는 목사인 제 자신에게 적용해 보았을 때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오병이어의 약속의 말씀(요 6:1-15)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언젠가 새벽기도회 때 주신 깨달음인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여 떡을 떼어 주님께서 나눠 주셨듯이 저도 말씀 묵상을 나눠야겠다는 것입니다. 나누되 주님 오시는 그날 까지 또는 제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일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해야겠다는 결심입니다. 성경 시편 101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피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의 눈은 이 땅의 충성된 자를 살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고 그 충성된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수종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수종할 수 있는 충성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4장 45-46절을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의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재확인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참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이는 말씀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어떠한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의 평가).

성경 고린도전서 4장 3-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 받는 것이 자기에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는 칭찬이던 비판이던 사람들에게 판단 받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사도 바울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바울을 칭찬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아 그 분은 참 신실하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펴 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그리고 신실하게 선포하시는 주님의 종이야.’ 이러한 칭찬을 받으면 바울은 충분히 기뻐하고 좋아할 수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칭찬이던 비판이던 그들의 판단을 매우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치 아니한다고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3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unreliable) 자기 자신의 판단도 믿을 수 없기에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달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고 말하였습니다(4절).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삶을 뒤돌아볼 때 심각한 죄를 알지 못하기에 자기 자신을 자책할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책할 아무 것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기로 하여금 아무 죄 없는 결백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판단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을 매우 작은 일로 여긴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에게 제일 중요한 판단은 바로 주님의 판단 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4절). 여러분, 왜 바울이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보다 주님의 판단을 중요시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5절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바울이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의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비록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그들의 행동을 보고 판단을 하지만 우리 중심을 보시고 계신 하나님만이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는 마음의 동기를 알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나 우리 자신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함에 있어

서 어떠한 사람들의 칭찬이나 비판에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평가를 제일 중요시 여기고 주님께 칭찬 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요 주님의 청지기들로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여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25:21)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 2절).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요즘 교회 광고를 보면 TV 광고하고 별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느낄 수 있는가 하면 TV 광고나 교회 광고나 다 외모가 예쁘게 생긴 여자들을 광고 모델로 세우는 것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 세상에서 회사들이 이런 저런 광고를 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할 만한 미모의 여인들을 내세워 홍보를 하는 것은 그러려니 할 수 있겠지만 웬지 교회에서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행사나 교회를 홍보할 때 교역자들이 볼 때 (그리고 성도님들도 볼 때?) 인물이 좋은 여 성도님들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세상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보고 있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참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하게 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보고 생각하시느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외모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보는 것은 외모입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조차도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외모인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고(삼상16:7) 마음에 “여호와와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습니다(6절).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의 외모를 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보고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벧전 3:3). 특히 요즘 같이 다들 예뻐 보이려고 성형수술이 난무한 시대에 값진 명품 옷과 명품 보석 장식, 명품 가방 등등으로 장식하고 걸어가는 미모의 여인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여자 예쁘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력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세상적인 아름다움에 현혹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 할 것”으로 한 것인데(4절)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내적 아름다움(inner beauty)보다 외모(outer appearance)에 더 치중하여 하나님 앞에 값진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안타가운 것은 마치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아무 흠모할만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한 것처럼(사53:2)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예수님에게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습니다(사53:2). 즉, 우리의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2절).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모에 치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외모에 치중할 삶

과 외모에 치중한 인간관계, 그리고 심지어 외모에 치중한 사역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흠모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우십니다. 비로 우리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예수님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빌2:8). 즉,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미약하게 보이고 고운 모양이나 풍채는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움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습니다. '마른 땅'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연한 순' 같아 얼마든지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처지에 있을지라도 위로부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외모로 볼 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에게 어떠한 매력을 느낄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매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며 매력을 느끼는 외모에 치중하는 삶을 살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값지고 매력을 느낄만한 내적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값진 내적 사람을 가꾸되 순종의 사람으로 가꾸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기원합니다.

결 론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내면적인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더러움과 외식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견고히 서서 세상과 분리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것을 끊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재물의 유혹을 뿌리치며 또한 절제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므로 교회의 하나 됨을 잘 지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족 식구들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좇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을 자제하며 침착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의 결혼을 책임지며 또한 주일을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을 의뢰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 받은 후에 우리 마음을 더욱더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는 우리 이웃을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삶을 살며, 바른 인간관계, 바른 사업관, 바른 상속관, 바른 미래관 및 바른 헌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도덕 생활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식하였던 바리새인들 보다 더 더 훌륭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합당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올바르게 정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담대히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맡은 바 책임을 끝까지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되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므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환난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소망, 나의 위로, 나의 노래, 나의 소유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로서 주님의 충성되게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어김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원합니다.